

디도

소도 바울이 디도 의게 보낸 편지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스도니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1= 비성의 믿음을 위함이며 경건함을 일구는 진리를 알게 하기를 위함이오
 2= 영성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성은 거짓 말이 업스신 하나님에 영원한 때
 3= 전부터 허락하셨더니 그 3= 의약이 니르매 그 말씀을 나타내셨스니 이는
 4=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가 맛아서 전파하는 말씀이니라 4= 웃은
 5= 믿음으로 나의 참아들 된 디도의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6= 예수 우리 구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잇슬지어다 6= 내가 너를
 7= 그레데에 둔 거슨 다름 아니라 완전치 못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함대로
 8=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함이니 만일 누구던지 청망이 업고 혼 안희의
 9= 남편이 되며 그 자녀도 믿어서 방탕하다 하는 말이 업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10= 업는 사람이 어든 세우라 10= 대개 감독은 하나님의 집 맛흔자니 맛당히
 11= 청망이 업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금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18 오직 손을 사랑하며 선을 도함하며 근신하며 의로오며 거룩하며 존절하며
 19 비혼바 밋본 말씀을 흥상 직히여 능히 바른 교훈으로 원면하고 거스려
 20 말하는 사람을 서듯게 청망할차라야 하리라 20= 대개 복종치 아니하고 혀
 21 말을 하며 사람을 속이는 자가 만흔 중에 할례 받은 자가 더욱 심하니 그 입을
 22 막을 거시라 22= 더희가 더러온 리를 취하려 함으로 맛당히 22= 거치지 아니할
 23 거슬 23= 처 집들을 온동 업드리지게 하도다 23= 그레데 사람 중에 더희
 24 선지자 하나 이 말하되 그레데 사람들이 흥상 거짓 말장이며 악한 조짐이며
 25 비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확실한지라 25= 그럼으로 네가
 26 더희를 엄히 꾸지져 더희로 하여곰 믿음을 온전케 하야 유대 인의 허탄한
 27 니야기와 진리를 비방하는자의 명령을 좃지말게 하라 27= 색긋흔자의게는
 28 모든 거시 색긋으나 더럽고 밋지 아니하는자의게는 하나도 색긋흔 거시 업고
 29 오직 그 믿음과 양심이 더러오니 더희가 하나님을 안다 하기는 하나 히실노는
 30 비방하는자니 흉악하고 복종치 아니하며 모든 착한 일을 거스리는자니라

디도 일장

륙빅팔십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거슬 말하야^三 혀은 남조로는 존절하며 단정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혀은 부녀로는 이와
 못치^四 형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착한 거슬^五 못치게
 하고 또^六 더들노는 여곰 젊은 부녀를 못치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색그^七 하며 제 집에서 일을 행하며 어질며 그 지아비를 순종하게
 하라 이는 하는^八 님의 도가 웨방을 밧지 안게 함이니라 너는 이와 못치^九 젊은
 남조를 권면하며 근신하게 하디 내가 무슨 일이던지 착한 형실의 본이
 되게 하며 교훈하는^十 디 간사하지 말며 단정하고 바른 말을 하야 가히
 청망할 거시 업게 하야 디^{十一} 덕하는 자로 하여곰 스스로 붓그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거시 업게 하라^{十二} 좃으로는 그 주인에게 순종하야 무슨 일이던지
 깃버하게 하야 거스려 말하지 말고^{十三} 떼여 먹지 말고 오직 그 충성을 다하야
 범스에 우리 구주하는^{十四} 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라 대개 하는^{十五} 님의 은혜가
 나타나 만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야 경건치아닌 것과 이 세상이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十六} 버라는

三

복과 크신^{十四} 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드리게
 하섯스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야 죽기를 버리심은 모든 불법함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색그^{十五} 하게 하사 열심으로 착한 거슬 행하는
 천박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 너는 이 거스로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제로 청망하야 사람의 업수히 녀임을 밧지 말나
 너는 더희로 하여곰 기억하야 다스리는 자와 권제 잡은 자에게 굴복하며
 순종하며 모든 착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게 하며 웨방^{十六} 하지 말며 다도지 말며
 온유하며 온전히 화평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디접하게 하라 대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으며 복종치아니하며 속으며 여러 가지 정욕과^{十七} 험락을
 좃츠며 악독과 투기로 평성을 지나며 가증스러오며 피추 뒤워^{十八} 하였스나
 우리 구주하는^{十九} 님의 은혜와 사람의 게베프신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함심이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은 거시 아나오 오직 그^{二十} 긍휼함을
 좃츠^{二十一} 차 중성의 씨슴과 성신의 새롭게 함심으로 말미암음이니 성신은 곳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게 후히 주사^{二十二} 우리들노 그

되도 삼장

륙빅팔십삼

은혜를 힘납어 의롭다 함심을 엿어 보라는바 영성의 괴업을 엿은 아들이
 되게 하셨스니 이 말이 밋브도다 원컨대 내가 여러 거슬 굿세게 말하야
 하느님을 밋는 사람으로 하여곰 힘써 착한 일을 행하게 하라 이는 다
 아름다오며 사람의게 유익한지라 오직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니야기와
 분쟁과 불법으로 다도는 거슬 피하라 이 거슨 무익하고 헛 거시니라
 당젧는 자를 한번 두 번 경척한 후에 곧 멀니하라 대개 이러한 사람은
 도를 비반하고 죄를 엿엇스니 제가 저를 영되한 자니라 ○ 내가 아데마나
 두기 고를 네게 보낼 때에 내가 어서 니고 불니라와 나를 차즈라 대개
 내가 거고셔 과동하기로 작당하였노라 불법학스세나와 밋아 볼노를 어서
 보내여 너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도 착한 일 행하기를
 비화 쓸 거슬 예비하야 열미업는 거슬 면하게 하라 ○ 나와 근처 잇는 자는
 다 네게 문안하니 밋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의게 너도 문안하라 ○ 은혜가
 너희 무리의게 잇슬지어 다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빌네몬

바울이 빌네몬 의게 보낸 편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야 갓친 바울과 밋형데 티모데는 우리의 사랑하고
 흠씩 슈고한 빌네몬과 밋즈미 압박아와 밋 흠씩 군스 된 아깁보와 네
 집에 잇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밋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게 잇슬지어 다 ○ 내가 흥상내 하느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내가 주 예수와 밋 모든 성도를 향하야
 사랑과 밋음이 잇슴을 드림이오 너의 밋음이 성도로 더브러 흠씩 하야
 공효를 일우어 사람으로 하여곰 너희게 잇는 모든 선을 알게 하야
 그리스도씩 영광을 돌니게 함이라 형데여 성도의 믿음의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엿엇스니 내가 너의 사랑음으로 크게 기쁨과 위로함을 엿엇노라 ○
 이럼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굿세여 네게 맞닿한 일노 명할수
 잇스나 오직 사랑음을 인하야 도로혀 네게 근절히 구하노니 나는 이에
 나이 만흔 바울이 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야 갓친 자라 내가 갓친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빌네몬

륙십팔십오

11 중에서 나 혼 아 들 오네 시 모 를 위 하 야 네 게 근 절 히 구 하 노 라 더 가 전 에 는
 12 네 게 무 의 하 였 스 나 이 제 는 나 와 네 게 다 유 의 함 으 로 네 게 돌 너 보 내 노 니
 13 더 는 내 심 복 이 라 더 를 머 물 너 나 와 함 식 하 야 내 복 음 을 위 하 야 갓 친
 14 중 에서 네 티 신 나 를 섬 기 게 하 고 저 하 나 다 만 네 뜻 을 아 지 못 하 고 는 아 모
 15 것 도 형 하 기 를 원 처 아 니 함 은 너 의 착 하 일 이 부 득 히 함 으 로 되 지 아 니 하 고
 16 즈 주 함 으 로 되 게 함 이 로 라 대 개 더 가 잠 시 너 와 서 로 떠 난 거 시 후 너 로
 17 하 여 고편 더 를 영 원 히 두 게 함 이 니 이 후 로 는 종 으 로 돌 거 시 아 니 오 종 으 서
 18 뛰 여 나 곳 스 랑 하 는 형 데 로 돌 차 라 내 게 특 별 히 스 랑 하 는 자 어 든 하 물 며
 19 네 게 라 육 신 과 주 로 상 관 된 차 니 라 그 럼 으 로 네 가 나 를 동 모 로 알 진 대
 20 이 사 람 영 접 하 기 를 나 와 죽 치 하 고 더 가 만 일 너 를 해 롭 게 하 거 나 네 게
 21 진 거 시 잇 거 든 내 게 로 회 계 하 라 나 바 울 이 친 필 노 쓰 노 니 내 가 네 게
 22 갑 하 려 니 와 너 는 이 런 것 외 에 네 몸 으 로 내 게 빚 진 거 시 잇 스 나 말 을
 23 아 니 하 노 라 형 데 여 내 가 주 안 으 서 너 선 님 에 기 뵈 을 엇 고 내 마음 이
 24 그리 스 도 안 으 서 평 안 함 을 엇 게 하 라 나는 네 가 순 종 하 는 주 를 기 뵈 히

11 밋 는 고 로 네 게 편 지 하 니 네 가 나 의 말 보 다 더 형 함 을 아 노 라 오 작
 12 너 는 나 를 위 하 야 처 소 를 예 비 하 라 대 개 너 희 기 도 함 으 로 내 가 너 희 게
 13 나 야 가 게 하 여 주 시 기 를 보 라 노 라 ○ 그리 스 도 예 수 를 인 하 야 나 와
 14 혼 가 지 로 갓 친 에 바 브 라 가 네 게 문 안 하 고 쓰 온 나 와 혼 가 지 로 슈 고 혼
 15 마 가 와 아 리 스 다 고 와 데 마 와 누 가 도 문 안 하 는 니 라 ○ 우 리 주 예 수
 16 그리 스 도 의 은 혜 가 너 희 마음 에 잇 슬 지 어 다 아 멘

빌레몬

륙빅팔십륙

11 밋는고로네게편지하니네가나의말보다더형함을아노라오작
 12 너는나를위하야처소를예비하라대개너희기도함으로내가너희게
 13 나아가게하여주시기를보라노라○그리스도예수를인하야나와
 14 혼가지로갓친에바브라가네게문안하고쓰온나와혼가지로슈고혼
 15 마가와아리스다고와데마와누가도문안하는니라○우리주예수
 16 그리스도의은혜가너희마음에잇슬지어다아멘

히브리

히브리 사람의
게 보낸 편지

넷째에 선지자들노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의게 말씀하신
 하느님이 이 모든 날 무즈막에 그 아들노 우리의게 말씀하셨스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스로 세우시고 또 그로써 모든 세계를 지으신지라 이는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래의 형상이시오 그의 능하신 명으로
 만물을 붓드신자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곳 우에서 위엄의
 우편에 안드셨스매 그가 텨스 보다 얼마큼 뛰여남은 너희 보다 더욱
 아름다운 일홈을 잇으심이니 하느님씩셔 어느 때에 어느 텨스의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나했다
 하셨스뇨 또

내가 그 아버지 되고 그가 내 아들이 된다

하셨스뇨 또 맛 아들을 잇으러 세상에 다시 드러오게 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의 모든 텨스가 다 그의게 레비홀지어다 하시며

또 텨스를 의론하야 글으샤디

그 텨스들노 바람이 되게 하며 그 부리는자들노 불췌치 되게 하니 나라
 하셨스되 오직 아들을 의론하야 글으샤디

하느님이여 네 보좌가 세계에 잇도다 네 나라 권병은 정직호 권병이라
 의를 사랑하고 불법함을 무위하였스니 그런고로 하느님 곳 너의
 하느님이 즐겨움의 기쁨으로 너를 부어 네 동모 보다 승하게 하였도다
 하셨고 또 글으샤디

주여 태초에 내가 싸를 세웠으며 하늘도 네 손으로 지은바라 그 거슨
 장차 멸망할 거시나 오직 너는 잇슬 거시오 그 거슨 다 옷과 곳 처
 낚아지리니 내가 두루막이 처럼 길 거시오 그 거시 옷과 곳 처 변할
 거시나 너는 여전한야 년세가 다함이 업스리라
 하셨스나 어느 때에 어느 텨스의게

내가 내 올흔 편에 안져 내가 네 원슈로 네 말 등상 되게 하기를
 기드리라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ㅎ섯느뇨 모든 련스들은 부리는 신이 되어 구원 잇을 후스를 위하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런코로 모든 드른 거슬 우리가 더욱 근절히 삼갈 거시니 후일허 브릴가
 넘려호노라 대개 련스들노 하신 말씀이 견고하야 모든 범죄함과
 술중치아니함이 공변된 보음을 밧앗거든 우리가 이 못치 큰 구원을 경히
 보면 잇지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바요 드른자가
 우리의게 확실히 증거하바니 하느님도 여러 징조와 이적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밧 자의 뜻을 쓰라 성신을 주신 거스로써 너희와 함께
 증거하섯느니라 ○ 우리가 말하느바 장차 오는 세상을 하느님이
 련스들의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 어터 증거하야 글은
 사람이 무어시관대 유색셔 너를 칭가하시며 인자가 무어시관대
 유색셔 너를 권고하시느 잇가 유색셔 너를 잠간 동안 련스 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함으로 관썌우시며 쓰흔 주의 손으로 모든 신 것
 우에 너를 세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섯느니라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ㅎ섯느니 대개 만물노 너의게 복종케 하섯슨즉 복종치안케 하거시 호나도
 업스나 우리가 아직 만물이 너의게 다 복종호 거슬 보지 못하섯스되 오직
 우리가 련스들 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남은자를 보니 곧 사망의
 고난 밧으심을 인하야 영광과 존귀함으로 관썌우라 이는 하느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물을 위하야 죽음을 맛보심이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자의게 합당호 거슨 만흔 아들들 잇신러 영광에 드러가게
 하실 때에 그 구원의 주장으로 하여곰 고난으로써 온전케 하심이니 대개
 거룩하게 하시느자와 거룩하게 함을 남은자들이 다 호나에서 난코로
 형제라 하시기를 보그 러워아니 하시고 날녘스되
 내가 주의 일음을 내 형제들의게 전파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미하라
 ㅎ섯스며 또 말씀하시되 내가 그를 의지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불지어 다 나와 밧 하느님씩셔 내게 주신 자녀라 하섯스니 자녀들은
 호가지로 혈육에 속하섯스매 그도 또 호호 모양으로 혈육에 호가지

히브리 이장

륙백구십일

三

十五 속항심은 소망으로써 소망의 권세를 잡은자 곳 마귀를 멸하려 항심이오
 十六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성에 종노릇하는 모든자들을 노하주려 항심이니
 十七 이는 실노 된스들을 도아주려 항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지손을
 十八 도아주려 항심이라 그런고로 그가 맛당히 범스에 형데들과 호시니 이는
 十九 하느님의 일에 즈비하고 충신히 대제사장이 되어 비성의 죄를 인하여
 二十 화목하는 제사를 드리려 항심이니 대개 지기가 시험을 밋아 고난을
 二十一 당하셨스죽 시험 밋는자들을 능히 도오시느니라
 二十二 그런고로 거룩한 형데 하늘의 부르심을 곳쳐 남은자들이 맛당히 우리
 二十三 밋는 도리의 소도시며 대제사장이 선예수를 기히 생각하라 그가 지기를
 二十四 세우신이의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는님의 원집에서 한 것과 호니
 二十五 그는 모세 보다 더욱 영광을 밋을 만흔 거시 맛치 짐세운자가 그집 보다
 二十六 더욱 존귀함 호니라 집 마다 반드시 누가 세운이가 잇스니 만물을
 二十七 세우신자는 곳하는님이시라 또 호 모세는 하는님의 원집에서 소환으로
 二十八 충성하여 장리의 말을 거슬 증거 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맛흔 아들노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七 충성하셨스니 우리가 그 집이라 다만 소망의 곳셈과 자랑함을 뜻치
 八 권고히 잡아야 할지라 그런고로 성신이 날으신바와 곳치
 九 오늘날 너희가 만일 그의 소리를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패케 하기를
 十 넷적에 노항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곳치 말나 거기서
 十一 너희 렬조가 나를 수담하여 시험하고 스십년 동안에 나의 항함을
 十二 보았느니라 그런고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끝으되 너희가 항상
 十三 믿음의 미혹되어 내 길을 아지 못하니 그런고로 내가 노하여
 十四 밋세하기를 너희가 내 안식에 드려 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十五 항섯스니 형데들이 너희가 삼가 후 너희 중에 누가 밋지 아니하는 악심을
 十六 품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떠나 떠러질가 넘려 할 거시오 오직 오늘이라
 十七 날것는 동안에 미일 피츠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가 죄에 유혹됨으로
 十八 완패함을 면케 하라 대개 우리가 만일 시작할 때에 독실히 밋는 거슬 뜻치
 十九 견고히 잡으면 할가지로 그리스도를 잇은자가 되리라 성경에 날것스되
 二十 오늘날 너희가 만일 그의 소리를 듣거든 넷적에 노항심을 격동할 때와

又^六 처^六 너^六 희^六 미^六 음^六 을^六 완^六 패^六 케^六 하^六 지^六 말^六 나
 ㅎ^六 엿^六 스^六 나^六 대^六 개^六 듯^六 고^六 겨^六 노^六 케^六 하^六 던^六 자^六 가^六 누^六 구^六 죠^六 다^六 모^六 세^六 를^六 좇^六 차^六 애^六 굽^六 으^六 서^六
 나^六 온^六 이^六 가^六 아^六 나^六냐^六 또^六 하^六 는^六 님^六 이^六 스^六 십^六 년^六 동^六 안^六 에^六 누^六 구^六 를^六 노^六 하^六 셧^六 는^六 죠^六 범^六 죄^六 하^六 야^六
 그^六 시^六 례^六 가^六 광^六 야^六 에^六 열^六 러^六 진^六 자^六 가^六 아^六 나^六냐^六 또^六 하^六 는^六 님^六 이^六 누^六 구^六 를^六 향^六 하^六 야^六 밍^六 세^六 하^六 샤^六
 그^六 안^六 식^六 에^六 드^六 러^六 오^六 지^六 못^六 하^六 리^六 라^六 하^六 셧^六 는^六 죠^六 곧^六 신^六 종^六 치^六 아^六 니^六 하^六 던^六 자^六 가^六 아^六 나^六냐^六
 이^六 로^六 보^六 건^六 대^六 더^六 희^六 가^六 밋^六 지^六 아^六 니^六 하^六 옴^六 으^六 로^六 능^六 히^六 드^六 러^六 가^六 지^六 못^六 하^六 는^六 거^六 시^六 라^六
 그^六 런^六 고^六 로^六 우^六 리^六 는^六 두^六 러^六 위^六 하^六 지^六 니^六 임^六 의^六 그^六 안^六 식^六 에^六 드^六 러^六 갈^六 허^六 락^六 이^六 잇^六 슬^六 지^六 라^六 도^六
 너^六 희^六 중^六 에^六 후^六 밋^六 지^六 못^六 하^六 샤^六 가^六 잇^六 슬^六 가^六 하^六 옴^六 이^六 라^六 대^六 개^六 전^六 후^六 복^六 음^六 이^六
 우^六 리^六 의^六 게^六 잇^六 는^六 거^六 시^六 더^六 희^六 의^六 게^六 잇^六 는^六 것^六 과^六 같^六 은^六 거^六 나^六 그^六 드^六 른^六 말^六 씬^六 이^六
 더^六 희^六 게^六 무^六 의^六 하^六 는^六 거^六 시^六 더^六 희^六 가^六 듯^六 는^六 자^六 로^六 더^六 브^六 러^六 밋^六 음^六 에^六 화^六 합^六 지^六 아^六 니^六 하^六 옴^六 이^六 라^六
 임^六 의^六 밋^六 는^六 우^六 리^六 들^六 은^六 안^六 식^六 에^六 드^六 러^六 가^六 는^六 지^六 라^六 그^六 말^六 씬^六 바^六 와^六 같^六 은^六 거^六 나^六
 그^六 런^六 고^六 로^六 내^六 가^六 노^六 하^六 야^六 밍^六 세^六 하^六 기^六 를^六 더^六 희^六 가^六 내^六 안^六 식^六 에^六 드^六 러^六 오^六 지^六 못^六 하^六 리^六 라^六
 하^六 옿^六 다^六

ㅎ^六 셧^六 스^六 나^六 세^六 상^六 을^六 창^六 조^六 하^六 셧^六 새^六 브^六 러^六 그^六 일^六 이^六 일^六 우^六 엿^六 는^六 나^六 라^六 대^六 개^六 데^六 칠^六 일^六 을^六
 어^六 티^六 의^六 룬^六 하^六 야^六 이^六 러^六 케^六 닐^六 넷^六 스^六 터^六 하^六 는^六 님^六 은^六 그^六 모^六 든^六 일^六 을^六 하^六 시^六 고^六 데^六 칠^六 일^六 에^六
 안^六 식^六 하^六 셧^六 다^六 하^六 셧^六 스^六 며^六 또^六 다^六 시^六 거^六 기^六 닐^六 넷^六 스^六 터^六
 더^六 희^六 가^六 내^六 안^六 식^六 에^六 드^六 러^六 오^六 지^六 못^六 하^六 리^六 라^六
 하^六 셧^六 스^六 나^六 그^六 러^六 면^六 드^六 러^六 갈^六 자^六 가^六 잇^六 거^六 니^六 와^六 복^六 음^六 전^六 후^六 를^六 문^六 저^六 받^六 은^六 자^六 는^六
 신^六 종^六 치^六 아^六 니^六 하^六 옴^六 으^六 로^六 드^六 러^六 가^六 지^六 못^六 하^六 옿^六 고^六 오^六 랜^六 후^六 에^六 다^六 외^六 의^六 글^六 에^六 다^六 시^六 하^六 로^六 를^六
 더^六 희^六 가^六 내^六 안^六 식^六 에^六 드^六 러^六 오^六 지^六 못^六 하^六 리^六 라^六
 오^六 늘^六 날^六 너^六 희^六 가^六 만^六 일^六 그^六 의^六 소^六 리^六 를^六 듯^六 거^六 든^六 너^六 희^六 미^六 음^六 을^六 완^六 패^六 케^六 말^六 나^六
 하^六 옿^六 스^六 나^六 만^六 일^六 여^六 호^六 수^六 아^六 가^六 더^六 희^六 게^六 안^六 식^六 을^六 주^六 엿^六 더^六 면^六 후^六 에^六 다^六 른^六 날^六 을^六
 말^六 씬^六 아^六 니^六 하^六 셧^六 스^六 리^六 라^六 이^六 로^六 보^六 건^六 대^六 안^六 식^六 하^六 셧^六 새^六 가^六 하^六 는^六 님^六 의^六 빅^六 성^六 의^六 게^六
 님^六 아^六 잇^六 스^六 리^六 라^六 대^六 개^六 임^六 의^六 안^六 식^六 에^六 드^六 러^六 갈^六 자^六 는^六 제^六 가^六 제^六 일^六 을^六 하^六 고^六 안^六 식^六 하^六 기^六 를^六
 하^六 는^六 님^六 이^六 저^六 기^六 일^六 을^六 하^六 시^六 고^六 안^六 식^六 하^六 심^六 과^六 같^六 은^六 거^六 나^六 그^六 런^六 고^六 로^六 우^六 리^六 가^六 맛^六 당^六 히^六
 힘^六 써^六 이^六 안^六 식^六 에^六 드^六 러^六 갈^六 지^六 니^六 이^六 는^六 누^六 구^六 던^六 지^六 더^六 신^六 종^六 치^六 아^六 니^六 하^六 옴^六 을^六 본^六 밧^六 아^六
 새^六 지^六 지^六 안^六 케^六 하^六 옴^六 이^六 라^六 대^六 개^六 하^六 는^六 님^六 의^六 말^六 씬^六 은^六 활^六 발^六 하^六 고^六 능^六 려^六 이^六 잇^六 서^六 좌^六 우^六 에^六

날선 검 보다 리하야 령훈과 신과 및 근절과 골슈를 썰너 쪽의 기저지
 향며 또 믿음에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지으신 거시 하나이라도 그 압해
 복게 나타나지 아님이 업고 오직 만물이 다 우리를 상관하시느자의 눈
 압해 별거버는 것 못치 드러난지라 ○ 그런고로 우리의게 큰 대제스장이
 잇스니 곳 승련하신자 하느님 아 들에 수시라 우리가 맛당히 밋는 도리를
 곳게 잡을지 어다 대개 우리의게 잇는 대제스장은 우리 연약함을
 테홀하시 아니하느자가 아니시오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혼결 못치 시험을
 밋은자로 되 죄는 업스시니라 그런고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압해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밋고 새를 새라 돕는 은혜를 엇을지 어다
 대제스장 마다 인간에서 취하신 사를을 위하야 세워 하느님씩 속하
 일을 맛하 레물과 속죄하는 제스를 드리게 하느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하
 사를을 능히 잘 용납할수 잇는 거슨 지기도 연약에 싸여 잇슴이니라
 이럼으로 백성을 위하야 속죄제를 드림과 못치 지기를 위하야 드리는
 거시 맛당하니라 이 존귀는 아모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교 오직 아론이

五

하느님의 부르심을 넘은 것 못치 넘은 자라야 할거시니 또 혼 이와 못치
 그리스도가 대제스장 되심도 스스로 높히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이
 더드려 날으샤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나핫도다
 향섯고 또 혼 이와 못치 다른 디에 말씀하샤되
 네가 제세에 제스장이 되여 멜기세덱의 반츠를 좇는다
 향섯스니 그가 육체에 제실 새에 지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실이 의게
 비시고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근구향섯스니 그 경외함을 인하야
 드르심을 엇엇는지라 비록 아들이시라도 밋으신 고난으로 순조함을
 비회셔 온전하였스즉 지기를 순종하는 모든자의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느님이 칭하시기를 멜기세덱의 반츠를 좇춘 대제스장이라
 향섯스니라 ○ 멜기세덱을 의론컨대 우리가 할 말이 만하나 히셔하기 어려온
 거슨 너희의 뜻는 거시 둔하야 짐이라 대개 새가 오램으로 너희가 맛당히
 스승이 될터인디 이제 누가 하느님의 도 시작의 몽함으로 너희를 다시 못치야

히브리 오장

류빅구심철

六

十三 ㅎ을 거시오 또 젖이나 먹고 든 든 혼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스니 대더 젖을
 十二 먹는 자 마다 못어 린으 희니 의의 도를 련습지 못 혼 자요 든 든 혼 음식은 곳
 十一 장성 혼 사람의 게 맛 당 혼 니 그 총명이 련 달 혼 으로는 능히 선 악을 분 변 혼 니 라
 十 그런 고로 우리 가 맛 당 히 그 리 스 도 도의 시작을 말 혼 기 를 그 만 두 고 온 전 혼
 九 디 나 아 가 고 터 를 다 시 닥 지 말 지 니 곳 죽 은 형 실 을 회 기 혼 과 하 는 님 씨
 八 신 종 혼 는 거 시 며 모 든 세 례 를 그 르 침 과 손 을 안 찰 혼 는 거 시 며 죽 은 자 의
 七 부 활 과 영 원 혼 심 판 이 라 만 일 하 는 님 씨 서 허 락 혼 시 면 우 리 가 그 온 전 혼
 六 디 로 나 아 가 리 라 무 릇 임 의 빗 처 빗 침 을 엇 고 하 늘 의 은 혜 를 맛 보 고 또 혼
 五 성 신 을 혼 가 지 로 엇 고 하 는 님 의 착 혼 말 습 과 리 세 의 권 능 을 맛 보 고
 四 비 교 혼 자 는 능 히 다 시 새 롭 게 하 야 회 기 게 혼 수 업 는 니 이는 조 기 가
 三 하 는 님 의 아 들 을 다 시 심 조 가 에 못 박 아 현 처 히 육 을 보 임 이 라 대 개 싸 이
 二 각 금 그 우 에 는 리 는 비 를 먹 고 초 소 를 내 여 밧 가 는 자 가 쓰 기 에 합 당 혼 게
 一 하 면 하 는 님 씨 복 을 밧 고 만 일 가 시 덤 볼 과 영 경 귀 를 내 면 받 드 시 브 림 을
 보 고 저 주 혼 에 갓 가 와 그 모 즈 막 은 불 살 습 음 이 되 리 라 ○ 스 랑 혼 는 자 들 아

十二 너희를 의론컨대 우리가 비록 이 못치 말하나 너희가 이 보다 낫고
 十一 구원함에 갓가온 거슬 겁히 밋노라 대개 하는 님이 불의 처아 나 혼 샤 너희
 十 형 혼 일 과 그 일 혼 을 위 하 야 나 타 낸 스 랑 으 로 임 의 성 도 를 섬 기 는 것 과
 九 이 제 도 섬 기 는 거 슬 너 저 브 리 지 아 나 혼 시 리 라 우 리 가 근 절 히 원 혼 는 거 스
 八 너 희 각 사 례 이 이 못 혼 부 지 련 혼 을 나 타 내 여 소 망 의 충 실 혼 을 엇 어 샅 서 지
 七 니 름 이 니 너 희 가 게 으 르 지 아 나 혼 고 밋 음 과 총 음 으 로 여 러 가 지 허 락 을
 六 엇 은 자 들 을 본 밧 을 지 어 다 ○ 대 개 하 는 님 이 아 브 라 함 의 게 허 락 혼 실 씨 에
 五 그 르 침 밧 제 혼 자 가 조 기 보 다 더 큰 이 가 업 습 으 로 조 기 를 그 르 침 밧 제 혼 야
 四 그 리 으 샤 디 내 가 복 을 주 디 총 너 를 복 주 고 만 케 하 디 네 조 손 을 만 케 하 리 라
 三 하 션 스 니 더 가 이 못 치 오 래 총 아 허 락 을 엇 엇 는 니 라 대 개 사 례 들 은 조 기
 二 보 다 큰 자 를 그 르 침 밧 제 혼 고 또 혼 모 든 다 토 는 일 에 밧 제 가 결 국 이
 一 되 는 니 라 이 와 못 치 하 는 님 은 허 락 을 엇 은 자 의 게 그 뜻 이 현 혼 지 아 나 혼 을
 더 욱 나 타 내 시 라 고 그 가 온 디 밧 제 로 보 중 하 션 스 매 이 두 가 지 는 변 치 못 혼
 일 이 니 하 는 님 이 이 일 에 능 히 거 조 말 을 하 실 수 업 는 지 라 화 를 피 하 고

히브리 룩장

룩빅구십구

九 압해 잇는 소망을 엇으려 하는 우리로 하여곰 온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八 우리가 이 소망이 잇는 거슨 영혼의 닻 ^又 하야 든든하고 견고하야 휘장
 七 안에 드러가니 그리로 압서가 신예수가 우리를 위하샤 드러가신지라
 六 그는 임의 멜기세덱의 반츠를 좃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니라
 五 대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오 지구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四 아브라함이 여러 님군을 죽이고 도라오는 거슬 맞나 복을 번자니 아브라함이
 三 일절 심분의 일을 논화준지라 그 일음을 변역하즉 첫째 의의 왕이오 또
 二 살렘 왕이니 곧 평안함의 왕이오 아비도업고 어미도업고 족보도업고 난
 一 시작도업고 성명의 논종도업서 하느님 아드과 방불하야 항상 제사장으로
 二 잇는니라 ○ 그 사들의 높은 거서 엇더함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三 엇은바 상품으로 심분의 일을 더의게 주었는니라 레위의 조손 중 제사장의
 四 직분을 받은 자가 명명을 받드러 불법을 좃차 비성의게 심분의 일을
 五 취하느니 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형제의게 그러케 하였스나 오직 레위
 六 족보에 들지 아니함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게 심분의 일을 취하고 그 허락을

七 엇은자를 위하야 복을 빌었는니 패일언하고는 존자가 높은자의게 복 빌을
 八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가 심분의 일을 받고 더의는 산다고 증거를
 九 엇은 자가 받았는니라 또 호심분의 일을 받은 레위도 임의 아브라함으로
 十 말미암아 심분의 일을 받았다 할수 잇는니 대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十一 맛날 때에 레위도 또한 저의 조상의 몸에 잇섯는니라 ○ 레위의 조손이
 十二 제사 직분을 엇었슬 때에 비성이 불법을 받았스니 만일 이 직분을 힘남어
 十三 온전함을 엇을 것 ^又 호면 엇지하야 별다른 할 제사장을 세워 멜기세덱의
 十四 반츠는 좃코 아론의 반츠는 좃는다 하거 아니 하였는 노임의 제사의 직분이
 十五 변역하즉 불법도 받는지 변역하리니 대개 이 말도 ^又 천차는 다른 지파에
 十六 속한 자라 그 중에 제단 일을 받든 자가 업는니 우리 유다로 좃차
 十七 나신 거시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을 말할 거시 업고 임의
 十八 멜기세덱과 ^又 호는 별다른 할 제사장이 나리나스니 불법의 변역하 거시
 十九 더욱 분명하니라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좃차 세운 거시 아니오
 二十 오직 무궁한 성명의 권능을 좃차 세운 거시니 대개 증거하야 닐넛스덕

히브리 철장

철벽일

네가 제세에 제스장이 되어 멜기세덱의 반츠를 좇는다

고엿도다 대개 전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엿스니 룰법은 아모

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오직 더욱 도흔 소망이 칭기니 이 거스로 우리가

하는 님씩 갖가히 가느니라 또 예수가 제스장 된 거슨 밁제업시 선 거시

아니시니 너희는 밁제업시 제스장이 되엿고 오직 예수는 밁제로 되신지라

세우신자가 말씀하샤디

주가 밁제하고 뉘웃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제세에 제스장이 되엿다

하섯스니 이와 못치 예수는 더 도흔 언약의 보증이 되섯느니라 너희

제스장 된자의 수효가 만흔 거슨 죽음을 인함야 항상 잇지 못함 사됨이로되

오직 예수는 제세에 계신고로 그 제스의 직분도 또한 같나지 아니하느니

그런고로 조그를 힘납어 하는 님씩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능이 잇는

거슨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함야 근구할심이라 ○ 대개 이러흔 대제스장은

우리의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함이 업고 더러움이 업고 죄인의게서 떠나

게시고 하늘 보다 높히 오르신자라 더 제스장이 몬져 조그 죄를 위함고

후에 백성의 죄를 위함야 날 마다 맛당히 제스 드리는 것과 못치

하지 아니하느니 그가 임의 혼번 조그를 드러 일우섯느니라 대개 룰법은

연약한 사름을 세워 제스장을 삼았거니와 룰법 후에 하신 밁제의 말씀은

아 들을 세워 제세에 온전케 하섯느니라

이제 우리 하는 말에 요긴흔 거슨 이러흔 대제스장이 우리의게 잇는 거시라

그가 하늘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안즈샤 성소의 집스가 되엿스니 이

성소는 사름이 천 거시 아니오 주씩서 베프신 총장막이라 무릇 제스장은

다 레물과 제스 드림을 위함야 세운자니 이럼으로 이 대제스장도 또한

무슴 드릴 거시 잇서야 맛당하니라 예수가 만일 싸에 계시면 제스장이

되지 못함 거슨 임의 룰법을 좇차 레물을 드리는 제스장들이 잇슴이라

더희가 섬기는 거슨 하늘에 잇는 거시 형상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엿음과 못흐니 글샤디 네가 삼가 모든 거슬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좇차 지으라 하섯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욱

아름다운 직분을 엿엇스니 이는 더욱 도흔 허락으로 세우신 더욱 도흔

히브리 팔장

칠십삼

三十七

二

三

四

五

六

七

연약의 증보가 되심이라 첫째 연약이 만일 희망이 없섯다면 둘째 연약을
세울 사단이 없섯스려니와 너희를 희망하야 날넷스되

쥬니 날의 사디 불지이다 날이 장차 니르면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으로 더브러 새 연약을 세우리라 내가 그 조상의 손을 쓰을교
애굽싸에서 인도하야 나을 때에 너희로 더브러 세운 연약과 못지
아니 함은 너희가 내 연약을 직히지 아니 함으로 내가 너희를 도라보지
아니 하였다고 쥬씩셔 말씀하섯스되 쥬씩셔 고의 사디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으로 더브러 세운 연약이 이 거시니 못내법을 그 뜻에
두고 그 모음에 샅여 나는 너희 하는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너희가 각각 제나라 사람과 제형대를 무르쳐 쥬를 알나 할
거시 업슴은 너희가 적은자로 브러 큰자 사지 다나를 알미라 대개 내가
더희 불의흔 거슬 불상히녀이고 그 죄악을 다시 괴역지 아니 할리라
하였느니라 하는님이 새 연약이라 말씀하섯스매 첫 연약은 낱아 지게 하신
거시니 낱아 지고 쇠하여 가는 거슨 업서져 가는 거시니라

九

첫 연약에도 섬기는 레법과 제상에 있는 성소가 있느니 대개 예비하야 둔
장막 압간에 등뒤와 상과 전설흔 떡이 있스니 이는 성소라 날컷고 또
둘째 휘장 뒤에 혼간이 있스니 지성소라 날컷는지라 거의 금향로의
스면을 금으로 싹 연약 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짜난 집행이와 연약의 비석 둘이 있고 그 우에 속죄소를 날키로 덤는
영화로 온 거름들이 있스니 이제 여러 거슨 낫낫치 말할 거시 업노라
이 모든 거슬이 못치 예비하였스니 제사장들이 항상 압장막에 드러가
섬기는 레를 행하교 오직 뒤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 일츠식 드러가되
피업서는 아니 드러가느니 이 피는 그의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야 드러는
거시라 성신이 이로써 보이신 거슨 첫 장막이 있슬 동안에 지성소에
드러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 혼 거시라 이 장막은 이 때를 무르친
비유니 그대로 드리는 레들과 제사가 능히 섬기는자로 하야 곱그 량심을
좃차 온전하게 못하교 오직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거스로
아을나 육례의 의문만 되여 새롭게 할 때 서지 있슬 거시니라 그리스도가

+

대개 불법은 장차 오논 아름다운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니 년년이
 들드리느바 ^二又 혼 제스로는 나아가는 사를을 능히 온전케 못할지니 만일
 온전케 할진대 엇지 섬기는 자가 할번 정결케 하야 다시 죄를 쳐드를 거시
 업슴으로 제스를 곳치지 아니하였스리오 ^三그러나 이 제스들은 년년이 죄를
 생각하게 하는 거시 있느니 대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업게 못
 하는지라 ^五그런코로 제상에 림할실새에 ^六그 ^七샤티
 하는님이 제스와 레물을 원치아니하시코 오직 나를 위하야 ^八홀 몸을
 예비하셨도다 ^九전례로 번제함과 속죄하는 제스는 깃버하지아니하시느니
 이에 내가 ^十골으티 하는님이여 보시옵쇼셔 성경 중에 나를 ^{十一}무르쳐
 기록한 것과 ^{十二}又 처하는님 ^{十三}뜻을 행하려 왔느이다
 하시지라 ^{十四}우에 임의 말씀하시기를 제스와 레물과 전례로 번제함과
 속죄하는 제스는 원치도아니하고 깃버하지도아니하신다 ^{十五}하셨스니 이는
 다 불법을 ^{十六}쳐라 드리는 거시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쇼셔 내가
 하는님의 뜻을 행하려 왔느이다 ^{十七}하셨스니 그 몬져 거슨 폐하고 후에 거슨

설립하려 하셨느니라 ^一이 뜻을 좇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二무릇 제스장이 미일 서서 섬기며 여러번 ^三又 혼
 제스를 드리되 이 제스는 도모지 죄를 업게 하지 못하거니와 ^四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야 ^五홀 영원한 제스를 드리고 하느님 ^六우편에 안즈샤 ^七그 후에
 원슈들노그 발 등상이 되게 하시기를 기드리시느니 ^八대개 ^九홀번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十또 ^{十一}홀 성신이 우리의게
 증거하샤 ^{十二}닐넛스디
^{十三}쥬 | ^{十四}골으샤티 그 날 후로는 ^{十五}더희와 언약을 세울 거시 ^{十六}이러하니 내
^{十七}를법을 그 ^{十八}모임에 두고 그 ^{十九}뜻에 ^{二十}샤이라라
^{二十一}하시 후에 ^{二十二}또 ^{二十三}닐넛스디
^{二十四}더희 죄와 불법함을 내가 다시 기억지아니하시라
^{二十五}하셨스니 ^{二十六}이 ^{二十七}거슬 ^{二十八}샤유하셨스즉 다시 ^{二十九}속죄하는 제스를 드릴 거시
^{三十}업느니라 ^{三十一}○ ^{三十二}그런코로 ^{三十三}형제들아 ^{三十四}우리가 ^{三十五}예수의 피를 ^{三十六}험납어 ^{三十七}담대히
^{三十八}지성소에 드러가느니 ^{三十九}그 ^{四十}같은 우리를 위하야 ^{四十一}회장 ^{四十二}가온디로 ^{四十三}열어노호신

새 영성 길이라 휘장은 곧 그 육례시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느 크신
 제사장 이 계시니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독실히 믿고 믿음에 뿌림을
 밧아 양심의 조칙하는 악을 버리고 몸을 묶은 물노써서 그 압력으로 나아갈
 거시오 우리가 브란다 하는 대로 굳게 지키며 음기 지아니 흘지니 대개
 허락하신 이는 믿브시니라 우리가 서로 도라보아 사랑과 선형을 격발케
 할 거시오 었던 사람의 본을 밧아 모히기를 폐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 날이 갖가음을 볼수록 더욱 더 모힐지니라 ○ 만일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안 후에 짐짓 죄를 범하즉 다시 속죄하는 제스가 업고 오직 무서운
 믿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뒤덕을 쇼멸할 밧을 만 잇스리라
 모세의 룰법을 폐한자 도 두세 중인이 잇스면 불상히 녀임이 업시 죽였거든
 향물며 하느님 아들을 밧고 조그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속된 물건으로
 녀이고 또 은혜를 베프는 성신의 계 육되게 하는 자의 응당 밧을 형벌이
 었더케 더욱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대개 우리가 이 말씀 향신자를
 아느니 글으샤 디 원슈 갑는 거시 내게 잇스니 내가 갑흐리라 하시고 또

글으샤 디 주가 그 비성을 심판하시라 하였스니 살아 계신 하느님의 손에
 빠져 드러가는 거시 무서울진디 ○ 전 날에 너희가 밧의 밧침을 낚은 후에
 만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거슬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을 밧아
 사람의 게노름거리가 되고 후이런 고난을 밧는자로 더 브러 곳치 밧았스니
 대개 너희가 갖친자를 불상히 녀이기도 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깃브게 용납흔 거슨 더욱 아름답고 흥상 잇는 산업이 잇는 줄
 알미라 그런고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나 이는 큰 상을 엿는니라 너희
 인내가 잇서야 너희가 하느님의 뜻을 행흔 후에 허락하신 거슬 엿으리니
 닐넛스티
 잠시 잠간 후에 오실이가 오실 거시오 더디 지아니 하시리라 나의
 을 혼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녀니와 만일 뒤로 물너가면 내 믿음의
 더를 깃버하시 아니하시라
 향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너가 칠월에 빠져질 사람이 아니오 오직 밧어서
 령흔 구원함을 엿는 자니라

一 밧음은 브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넷 사람이
 이로서 아름다운 증거를 엮은지라 밧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는님의
 말씀으로 지으신줄 아는니 곧 보이는 거슨 나타난 거스로 말미암아 된거시
 二 아니니라 밧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아름다운 제사를 하는님께
 드림으로 의로운자라 하시니 증거를 엮었스나 하는님이 그 레물에 더하시
 三 증거하신지라 더가 죽었스나 그 밧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는지라 밧음으로
 에녹은 죽지안코 승려하였스나 하는님이 승려하게 하시므로 사람이 다시
 四 만나지 못호리라 그 승려하기 전에 하는님을 깃브시게 하는자라 하는
 증거를 엮었느니라 밧음이 엽슨즉 하는님을 깃브시게 못호느니 대개
 五 하는님씩나아가는자는 받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호는 그가 조의를 찾는자의게
 상 주시는 거슬 밧어야 할지니라 밧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못하는 일에
 六 지시하신심을 밧아 경건함으로 방슈를 예비하시니 그 집을 구원하였스니 이
 밧음으로 세상의 죄를 멸하고 밧음을 좇는 의의 후스가 되었느니라
 七 부르심을 밧은 아브라함은 밧음으로 순종하시니 장차 괴업으로 밧을 싸에

八 나 같시 같바를 아지못하고 간지라 밧음으로 더가 외방에 있는 것 못치
 九 허락하신사에 나그내가 되어 못호는 허락을 흠씩 밧은자 이삭과 야곱으로
 十 더브러 장막에 거하였스니 대개 더가 있는 성을 브랏스매 경영하시니
 十一 지으신자는 곳하는님이시니라 밧음으로 사라도 나히 능어 단산하였스나
 十二 잉터하는 힘을 엮었스니 이는 허락하신자를 밧브신줄알미라 이런교로호
 十三 죽은자와 방불은 사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별의 허다함과 또 해변에
 十四 있는 모래의 무수함과 못치 만히 성육하였느니라 이 모든 사름은 다
 十五 밧고 죽었고 허락하신 거슬 밧지못하였스되 그 거슬 멀니 브라보며
 十六 깃브시고 또 조리가 싸에 잇서서 외국인과 나그내로라 하였스니 이 못치
 十七 말호는자는 그 분향 찾는 거슬 불히 표함이라 더하가 만일 나온바 분향을
 十八 생각하였더면 가히 도라갈 기회가 잇섯스려니와 더하가 이제는 더욱
 十九 아름다운 분향을 스모하시니 곳 하늘에 잇는 거시라 그런교로 하는님이
 二十 더히하는님이라 날름을 붓그려워하시니 더히를 위하시니 성을
 二十一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밧을 싸에 밧음으로 이삭을 드렸스니

十八 더는 허락을 받은 자로 되고 그 독성 즈를 드린지라 더의 계임의 말씀하시기를
 十九 네 조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스니 더가 하는 일이
 二十 능히 죽은가 온디셔 다시 살니 실졸노 뜻한지라 비유컨대 죽은가 온디셔
 二十 一 도로 밧았느니라 밧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더야 야곱과 에서를
 三 二 복을 밧었스며 밧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각각 복을
 三 三 밧고 또 그 집행이들의 지야야 영복하였스며 밧음으로 요셉은 림종시에
 三 四 이스라엘의 조손들이 장차 애굽에서 떠날 거슬 말하고 또 그의 히골을
 三 五 위하야 유언하였스며 밧음으로 그 부모가 모세를 나하슬 때에 쥬슈한
 三 六 거슬 보고 석들 동안을 숨겨 님군의 명령을 무셔워 아니하였스며 밧음으로
 三 七 모세는 장성하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함을 거절하고 도려하는 님의
 三 八 밧성으로 더브리 고난 밧기를 잠시 죄악의 락을 누리는 것 보다 더욱
 三 九 도 하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야 밧는 롱육은 애굽의 모든 저물 보다 더욱
 四 〇 중히 녀었스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불이라 밧음으로 애굽을 떠나 님군의
 四 一 노함을 무셔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시느라를 보는 것 또 처하야

一 二 출앗스며 밧음으로 유월절과 피써리는 례를 더하야 장즈를 멸하는자로
 一 三 더희를 해하치안케 하였스며 밧음으로 더희가 홍해를 육디 또 처갓스나
 一 四 오직 애굽사들은은 시험하야 행하다가 못써져 죽었스며 밧음으로 칠일
 一 五 동안에 여러고성을 두루 다니매 성이 문히졌스며 밧음으로 기성라함은
 一 六 신중하지 아니할자와 흠씩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정답군을 평안히
 一 七 디접할 연고라 내가 무슴 말을 더하리오 만일 깃어온과 바락과 삼손과
 一 八 엽다와 밧다윗과 삼우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랴 면새가 부족하겠도다
 一 九 더희가 밧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허락하신
 二 〇 거슬 엇기도 하고 스즈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를 멸하기도 하고
 二 一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하다가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징에 용맹되여
 二 二 이방사들의 진을 물니치기도 하고 부녀들은 저희 죽은자를 부활함으로
 二 三 도로 맞나기도 하고 또 엇던 사들은 더욱 도흔 부활을 엇고저하야 홀독한
 二 四 형벌을 밧으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또 엇던 사들은 희롱과 채찍질을
 二 五 밧을뿐 아니라 결박함과 옥에 갖치는 시험을 밧았스며 돌노 처는 것과

히브리 십일장

칠십삼

립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남기고
 류리호야 궁핍과 환난과 고성을 밧앗스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너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류리호였느니라 이 모든
 사람이 밧음으로 말미암아 칭찬함을 엿엇스나 허락하신 것을 엿지
 못하였스니 대개 하는님이 우리를 위하야 더욱 도흔 것을 예비하셨스나
 만일 우리가 아니면 너희로 하여곰 온전함을 일우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이럼으로 허다흔 간증자들이 구름 못치 우리를 들녘스니 맛당히 모든
 거리는 것과 엇미이기 쉬운 죄를 버셔 버리고 춤음으로 우리 압헤 잇는
 다름박질 마당에 달리며 밧음을 주창하샤 온전케 하시는데 수를 보라 보자
 더는 그 압헤 둔 즐거움을 인하야 십자가에 고난을 춤으샤 그 붓그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는님 보좌 우편에 안드셨느니라 그가 악인의 이
 못흔 거역을 밧고 춤으신 것을 생각하코 너희가 피곤하야 락심치 말나
 너희가 죄를 디덕하되 오히려 피흘니기까지는 힘쓰지 아니하코 또 아들들을
 권하는 것 못치 너희게 권면하신 말씀은 내젓도다 널넛스되

호

내 아들이 류의 징계함을 경하게 녀이지 말며 썩지짐을 밧을 때에
 락심하지 말나 대개 주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코 또 그
 모든 밧으시는 아들들을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스니 너희가 춤는 거시 징계 밧는 거시라 이럼으로 하는님이 아들과
 못치 너희를 디접하시느 거시니 엿지 아버의 징계를 밧지안는 아들이
 잇스리오 대더 징계는 모든 아들이 밧는 거시어늘 만일 너희게는 업스면
 스스로운 아들이 오 춤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테의 아바자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흘리며 모든 신령의 아바지씨 더욱 복종하야
 살을 엿지안겟느냐 너희는 잠시 조과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는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야 그 거룩하심을 할가지로 엿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는 당할 때에 즐거운 거시 아니오 숨흔듯하나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려달할 자의게는 의의 평강을 열미를 밧느니 그런코로
 피곤흔 손과 연약흔 무릅을 맛당히 강건하게 하코 너희 말을 위하야 꾀은
 기일을 만드러 저는 드리로 하여곰 어그러지지안코 나음을 엿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브러 화목하고 기록함을 좃츠라 기록지 아니한 자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맛당히 도라보아 하는 님은 헤에 신허진자가 잇슬가
 두려워하고 또 쓴 썩리가 나서 너희를 혼들고 여러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남을가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후에서와 곳치 망녕된 자가
 잇슬가 두려워하라 더는 혼그릇음식을 위하야 장조의 괴업을 팔았더니
 그 후에 북 빌을 엮으라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브린바가 되여 그 잘 못
 일을 곳칠 기회를 엮지 못할 거슬 너희가 아난바니라 ○ 너희의 나른 곳은
 형상 잇고 불 붙는 산도 아니오 또 후운과 감감한 것과 포풍과 라발
 소리와 말하는 소리도 아니라 무릇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다시 말습하
 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엿스니 이는 족칭이라도 만일 산에 나르거든 돌노치라
 하신 명을 너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러등시 무섭기로
 모세도 님의 내가 심히 두렵고 쉼난다 하엿스나 그러나 너희가 나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는 님의 성 하늘 우에 예루살렘과 천만
 천스와 하늘에 기록한 모든 장조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三三

三二

三一

三〇

二九

二八

二七

二六

二五

二四

二三

二二

二一

二〇

하는 님과 밋은 전케 된 의인의 영혼과 신약의 증보 되신 예수와 밋 썩린바
 피니라 이 피가 말하는 거슨 아벨의 피 말하는 것 보다 더욱 나으리라
 삼가 하야 말하신 자를 슬허 브리지마라 임의 싸에서 명하신 자를 너희가
 슬허 브리고 오히려 피하지 못하엿거든 하늘며 하늘노 좃차 명하신 자를
 우리가 티반하면 엮지 피할수 잇스리오 그 때는 그 소리가 싸를 진동
 하엿거니와 이제는 허락하야 곧 샤편 내가 또 할 번이면 싸 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셧느니라 이 또 할 번이라 하신 말씀은 진동할 것들을
 모든 물건 처럼 떼우고 진동치 아니할 거슬 영존케 함을 비히 보이심이라
 그런코로 우리가 임의 가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밋앗스즉 맛당히 은혜를
 엮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써 하는 님을 깃브게 섬길지니 대개 우리
 하는 님은 쇼멸하는 불이시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곳치지 말고 손님 되접하기를 넋지마라 후이 이 곳치
 함으로 부지 중에 런스를 되접하엿느니라 가천자의게는 자기가 흠썩
 갓천거스로 생각하고 고성 밋는 자의게는 자기가 또 할 몸에 잇는 거스로

三三

三二

三一

三〇

二九

二八

二七

二六

二五

二四

二三

二二

二一

二〇

四 생각하라 혼인을 귀히 녀이고 침소를 더럽다 말나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는 님이 심판하시리라 범사에 돈을 탐하지 말고 있는바를 족할 줄로
 五 알나 대개 하는 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단코
 六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셨스니 그런고로 우리가 담대히 글으되
 七 주는 나를 돕는 자지니 무서움이 업노라 사름이 내게 엇지 향리오
 八 너희를 인도하여 하는 님의 도를 따르치던 자를 생각하며 그 행하는 바의
 九 종말을 궁구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밧을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나
 十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니라 별다른 교훈과 이단에 설지 말나
 十一 대개 믿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써 할 거시 아니나
 十二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할 자는 유익함을 엇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게 할
 十三 제단이 있스니 그 우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가히 먹지
 十四 못하시라 대제사장이 속죄하기 위하여 가지고 성소에 드러가노 그 피의
 十五 즙성 몸덩이는 영문 밧게 불살오느니라 그런고로 예수도 그의 피로써
 十六 백성을 거룩케 하라고 성문 밧게서 고난을 밧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十七 그 영육을 지코 영문 밧기로 그의게 나갈 지어다 우리가 여의는 향상 거 할
 十八 성이 업고 오직 장리성을 찾는 나 이럼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늘
 十九 찬미하는 제사를 하는 님씩 드릴 지니 곳 그 일함을 찬송하는 입설의 열미니라
 二十 그러나 선을 행하고 서로 구제하기를 잊지 마라 이 모든 제사는 하는 님이
 二十一 깃버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의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대개 너희는
 二十二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주의가 회개할 것 곳치 하는 자니 너희로
 二十三 하여곰 즐겨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나 그리치 아니할 즉 너희게
 二十四 유익함이 업느니라 ○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착하게
 二十五 행하려 함으로 우리의게 착한 양심이 있는 줄을 기쁘히 아노니 내가 속히
 二十六 너희게 도라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근구하라 ○ 양의 큰
 二十七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가운데서 잇설어 내신
 二十八 평강을 주시는 님이 모든 착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라 주의 뜻을
 二十九 행하게 하시고 그 압해 즐거움 거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三十 믿음에 일우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을 제세에 돌닐 지어다 아멘 ○ 형제들아

히브리 십삼장

철벽이십

^三 이제 내가 두어조를 적어 보내노니 권면하는 말을 용납하라 ^{三三} 우리 형제
^{二四} 디모데가 노힌 거슬 너희가 알나 그가 만일 속히 오면 내가 함께 가서
^{二五} 너희를 보리라 ○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밋 모든 성도의게 문안하라
^{二六} 잇달니 국에서 온 자도 너희게 문안하는 니라 ○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의게
^{二七} 잇슬지어다 아멘

(Faint bleed-through text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including the words '이제 내가 두어조를 적어 보내노니 권면하는 말을 용납하라' and other parts of the letter.)

야고보

야고보 각처에 보낸 편지

^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열두 지파 훗혀진 자의게 문안
^二 하는노라 ○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깃브게
^三 녀이라 너희 밋음을 련단하는 거시 인내를 나게 하는 줄 알지니 오직 인내를
^四 온전히 일우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곰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
^五 너희 중에 누구던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리의게 후히 주시고 쓰짚지 아니
^六 하시느니라 님씩 구하라 반드시 주시리라 오직 밋음으로 구하고 조곰도
^七 의심하지 말나 의심하는 자는 맞치 바다 물결이 바람에 밀녀 요동하는 것
^八 같흔지라 이런 사람은 무어시던지 쥬씩 엇기를 생각하지 말지니 두 마음을
^九 품어 모든 일에 영험이 업는 사람이라 ○ 나 존 형제는 저의 곱하진 거슬
^十 자랑하고 부흔 형제는 저의 나자진 거슬 자랑할지니 이는 곱의 싹과 꺾
^{十一} 썩나감이라 허가 뜻고 쓰겨온 바람이 불어 곱을 들니 우면 싹치 썩러져 그
^{十二} 모양의 아름다온 거시 업서지니 부흔 자도 그 형하는 일에 이와 같치

야고보 일장

칠십이십삼

十二 최잔하리라 ○ 시험을 받고 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개련단함을 받은 후에
 十三 시험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주께서 그의를 사랑하느 자의게 허락하신바니라
 十四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는 짐씩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十五 하느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오 또 천히 사람을 악으로
 十六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제 욕심에
 十七 싹녀 미혹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十八 낳느니라 내 사랑하느 형제들아 스스로 속이지 말나 각양 도흔 상급과
 十九 온전한 은혜가 다 우으로 보려 광명하신 아바지로 말미암아 느려오느니
 二十 아바지는 변역하심도 없고 전동하느 그림자도 없스신지라 그가 그의 뜻을
 二十一 좃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내사 그 조성하신 중에 처음 너은 열미가
 二十二 되게 하섯느니라 ○ 내 사랑하느 형제들아 이거슬 너희가 알거니와 오직
 二十三 사람마다 뜻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二十四 성내는 거시 하는님의 의를 일우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二十五 넘치는 악독을 내여 버리고 믿음에 심은 도를 은유함으로 받으라 이는 능히

三 너희 영혼을 구원하느 도니라 너희는 도를 행하느 자가 되고 뜻가 만 하야
 四 스스로 속이지 마라 대개 도를 뜻고 행하지 아니하느 자는 비유컨대 사람이
 五 거울도 그의 육신의 얼굴을 보느 것 같으나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엇더할
 六 거슬 못느져 버리거니와 오직 조유하게 하느 온전한 물법을 살펴 써나지
 七 아니하느 자는 뜻고 낫느 자가 아니오 좃차 행하느 자나 이 사람이 그 행하느
 八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던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그 혀를 자갈 먹이자
 九 아니하고 제 믿음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함이 헛거시니 하느님이 아바지
 十 압해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업느 경건함은 곳 부모 업느 회와 과부를
 十一 환난중에 도라보고 또 스스로 삼가 지켜 세속에 물드지 아니하느 거시니라
 十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곳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았스즉 사람을
 十三 의 모로 취하지 마라 만일 금가락지를 세고 아름다운 옷을 닐은 사람이
 十四 너희 회당에 드러오고 또 환난 중에 간난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닐고 드러오면
 十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닐은 자를 도라보아 닐고 더러운 옷을 닐고 드러오면
 十六 하고 또 간난한 자의게 닐고 더러운 거시 셤던지 내 말등상 아래 안드라

야고보 이장

칠십이십소

四 혼즉 너희제리 서로 구별하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거시 아니냐
 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드를 지어 다 하는 님이 세상에 간난한 자를 락한 사
 六 밋음에 풍성하게 하시고 또 저의 사랑을 받는 자의게 허락하신 나라의 후스가
 七 너희를 압제하며 선을 고 법관 압해 가지 아니하는냐 너희를 닐렸는바 그
 八 아름다운 일음을 더희가 휘방하지 아니하는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九 기록한대로 리웃 사랑하기를 제 몸 못치하라 하신 지극한 법을 직하면
 十 잘 하는 거시 어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거시니
 十一 룰법이 너희를 범죄한 자로 덩하리라 누구던지 원 룰법을 다 직히다가
 十二 상나이라도 범하면 모도 범한 자가 되니 간음하지 말나 하신이 가 또
 十三 살인하지 말나 하섯스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스나 살인하면 룰법을
 十四 범한 자가 되니라 너희는 말에나 현실에나 장차 자유의 룰법대로 심판
 十五 밋을 자로 알고 행하라 공회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공회 업시 심판을 밋을
 十六 거시니 오직 공회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나라 ○ 내 형제들아 만일

一 사름이 밋음이 잇노라 하고 행음이 업스면 무슴 유익함이 잇스리 오 그
 二 밋음이 능히 저의를 구원하겠는나 만일 형제나 저리나 닐을 거시 업고
 三 일용할 양식이 업는디 너희 중에 누구던지 닐은디 평안히 가서 더웁게 하고
 四 비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 에 쓸 거슬 주지 아니하면 무슴 유익함이 잇스리 오
 五 이와 못치 행음이 업는 밋음은 홀노 잇서 죽은 거시라 흑이 곧은디 너는
 六 밋음이 잇고 나는 행음이 잇스니 너의 행음은 교사하고 네 밋음을 내게
 七 보이라 또 내가 행음으로 내 밋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는 님이 오직
 八 한 분이 신 줄을 밋으니 잘 하는 도다 사귀들도 또 한 밋고 썬는 나라 하단
 九 사름아 행음이 업스면 밋음이 헛거 신 줄 알아 보라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十 그 아들이 삭을 제단에 드렸스니 의가 된 거시 행음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十一 밋음이 그 행음으로 더브러 행하고 또 행음으로 말미암아 밋음이 온전케
 十二 된 거슬 네가 보는나 이에 성경에 닐렸스디 아브라함이 하는 님을 밋으니
 十三 이 거슬 의 된 거스로 너 이시고 하는 님의 벗이라 칭하였다 하신 말씀이
 十四 응하였는 나라 이로 보건대 사름이 행음으로 의가 되고 다만 밋음으로 만

야고보 이장

칠십이십륙

三

二五 되논 거시 아니라 ^{三五}또 이와 ^{三六}긋치 기성 라합이 스자를 접티야 다른 길도
 二四 나가게 할엿스니 의가 된 거시 ^{三五}형함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三六}목숨이 업스면
 二三 몸이 죽은 것 ^{三六}긋치 형함이 업스면 ^{三六}밋음이 죽은 거시니라
 二二 내 형데들아 너희가 만히 스승이 되지말나 스승된 우리는 더욱 중한 심판
 二一 밧을 줄을 알지라 우리 ^{二二}가 다 허물이 만흐니 만일 말에 허물이 업는 자면 곧
 二〇 온전한 사람이 되여 능히 원 몸도 굴네 ^{二〇}씨우리라 ^{二一}우리가 물을 순종케
 一九 할라고 그 입에 자갈 먹여 원 몸을 이리 더리가 ^{一九}가게 할고 ^{二〇}또 비가 비록 심히
 一八 크기도 할고 광풍에 밀녀 ^{一八}가기도 할나 ^{一九}지극히 적은 ^{二〇}치로 사공의 뜻대로
 一七 이리 더리가 ^{一七}가게 할는 ^{一八}니 이와 ^{一九}긋치 허가 ^{二〇}또 할 비록 적은 ^{二一}지례로 되큰 거슬
 一六 ^{二二}즈랑 할도 다 불지어 다 ^{二三}엇더케 적은 불이 ^{二四}엇더케 만흔 나무를 티우는 ^{二五}니
 一五 ^{二六}허는 ^{二七}곳 불이라 우리 지례 중에서 ^{二八}세게 ^{二九}긋치 큰 악한 거시 ^{三〇}허니 능히 원
 一四 몸을 더러히고 ^{三五}분회 할는 ^{三六}만물을 불살호는 ^{三七}니 그 살호는 거시 ^{三八}디옥 불에서
 一三 ^{三九}나는 ^{四〇}니라 ^{四一}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四二}버러지와 물고기를 다 ^{四三}가히 제어 할만
 一二 ^{四四}할고 ^{四五}사물의게 제어 함이 ^{四六}되엿스되 ^{四七}오직 ^{四八}허는 ^{四九}능히 제어 할 ^{五〇}사람이 업고

九 이에 쉬지 아니 할는 악이 오 죽이는 ^九독이 ^{一〇}그득 할 거시라 ^{一一}이로써 ^{一二}우리가 주
 八 아바지를 찬송 할고 ^九또 이로써 ^{一〇}하는 ^{一一}님의 형상대로 ^{一二}지으신 ^{一三}사람을 ^{一四}저주 할는 ^{一五}니
 七 ^{一六}할 입으로 찬송과 ^{一七}저주가 ^{一八}나는도다 ^{一九}내 형데들아 ^{二〇}이 거시 ^{二一}맛당치 아니 할지라
 六 ^{二二}십이 ^{二三}할 구멍으로 ^{二四}엇지 들고 ^{二五}쓴 물을 ^{二六}내게는 ^{二七}노 ^{二八}내 형데들아 ^{二九}엇지 ^{三〇}무화과
 五 ^{三一}나무가 ^{三二}감람 열미를 ^{三三}미지며 ^{三四}포도 ^{三五}나무가 ^{三六}무화과를 ^{三七}밋게는 ^{三八}노 이와 ^{三九}긋치
 四 ^{四〇}또 ^{四一}심미 ^{四二}든 물을 ^{四三}내지 못 할는 ^{四四}니라 ^{四五}○ ^{四六}너희 ^{四七}중에 ^{四八}누가 ^{四九}지혜와 ^{五〇}총명이
 三 ^{五一}잇는 자요 ^{五二}그 ^{五三}형함은 ^{五四}일이 ^{五五}선형으로 ^{五六}말미암아 ^{五七}난 ^{五八}거슬 ^{五九}지혜의 ^{六〇}은유함으로
 二 ^{六一}보이라 ^{六二}너희 ^{六三}마음 ^{六四}속에 ^{六五}독한 ^{六六}쇠괴와 ^{六七}다름이 ^{六八}잇스면 ^{六九}즈랑 할지 ^{七〇}말고 ^{七一}또 할
 一 ^{七二}진리를 ^{七三}티덕 할야 ^{七四}거짓 말을 ^{七五}할지 말나 ^{七六}이러 할지 ^{七七}혜는 ^{七八}우으로 ^{七九}브러 ^{八〇}난 거시
 〇 ^{八一}아니 오 ^{八二}오직 ^{八三}세상과 ^{八四}정욕과 ^{八五}마귀의게 ^{八六}붓흔 ^{八七}거시나 ^{八八}대개 ^{八九}쇠괴와 ^{九〇}다름이
 〇 ^{九一}잇는 ^{九二}곳에 ^{九三}요란 함과 ^{九四}모든 ^{九五}악한 일이 ^{九六}잇는 ^{九七}니라 ^{九八}오직 ^{九九}우으로 ^{一〇〇}브러 ^{一〇一}난 ^{一〇二}지혜는
 〇 ^{一〇三}몬져 ^{一〇四}색 ^{一〇五}곳 할고 ^{一〇六}후에 ^{一〇七}화평 할며 ^{一〇八}은유 할며 ^{一〇九}량 순 할고 ^{一一〇}그 ^{一一一}순 함과 ^{一一二}선 함 ^{一一三}열미가
 〇 ^{一一四}그득 할고 ^{一一五}편벽 됨과 ^{一一六}거짓 이 업는 ^{一一七}니 ^{一一八}또 ^{一一九}화평 할게 할는 ^{一二〇}자는 ^{一二一}화평 함을 ^{一二二}심어
 〇 ^{一二三}의 의 열미를 ^{一二四}거두는 ^{一二五}니라

네희 중에 싸움이 어더로 좃차 나며 다름이 어더로 좃차 나뇨 다름
 아니라 너희 지례 중에서 싸호는 정욕으로 좃차 난 거시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엇지 못하고 살인하며 쇠의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지라
 너희가 다르고 싸호는도다 너희가 엇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오 구하여도
 밧지 못하는 거슨 정욕으로 쓰라고 잘 못 구함이라 음행하는 내인 곳 혼
 너희들아 세상과 벗이 된 거시 하는 님과 원슈가 된 거신 줄을 아지 못하는
 그런즉 누구던지 세상과 벗이 되고져는 자는 곳 스스로 하는 님이 우리 속에
 되게 함이니라 너희가 성경 말씀이 헛된 줄도 아는뇨 하는 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하신 신이 열심을 내여 쇠의 하였는도 오직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그런고로 님이 님이 하는 님이 교만함을 물너치시고 겸손한 자의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스니 이럼으로 너희가 하는 님이 겸손함을 지어다 마귀를
 디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거시오 하는 님을 갖가지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갖가지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의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우심을 의통으로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밧고며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밧고라 주압해서 스스로 늦게 할지 어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돕하시리라 ○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나
 형제를 비방하던지 형제를 폄론하는 자는 곧 불법을 비방하고 불법을
 폄론하는 거시라 내가 만일 불법을 폄론할즉 불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오
 다만 재판장이로다 불법을 세우신 이와 재판장은 오직 하나 뿐이시니 능히
 구원하시며 능히 멸하기도 하시니라 나는 누구관대 남을 폄론하는나 ○
 자 너희 중 오늘이나 리일이나 아모 성에 가서 거의셔 일년을 류하며
 장사야 리를 었겠다 하는 자들아 리일 일을 너희가 아지 못하는도다 너희
 성명이 무어시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곧 업서지는 안키니라 오직 너희가
 말할 거슨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거슬 항리라
 할 거시어늘 이제 너희가 교만함으로 자랑하니 이러할 자랑은 다 악한
 거시라 이럼으로 사름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험치 아니하면 죄가 되는니라
 부한 자들아 너희게 림할 고난을 인하여 슬피 울고 통곡하라 너희 지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스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스니 이 록은

三 十七 十六 十五 十四 十三 十二 十

네 회를 치는 증거가 되어 불 교치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저물을 싸하도다 너희 밧헤 추슈흔 품고 속이고 주지 아니 혼 삭이 소리를
 지르고 또 추슈흔 자의 우는 소리가 만유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싸에서 싸치고 연락야 죽이는 날에 너희 마음을 길넛도다 너희가
 올흔 자를 덩죄하고 죽였스되 더가 너희를 뒤덕지 아니 하였느니라
 그런고로 형제들아 기리 츠아 유가 나타나 시기를 기다리라 불지어다
 농부가 싸에서 나는 귀흔 열미를 보라고 기리 츠아 일으고 느즌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기리 츠고 마음을 굳게 하라 유가 강림하심이 갓가오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나 그리하여야 심관을 면하리라 심관하실이 가
 문압해섯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일흠으로 말흔 선지자들노 고성과 기리
 츠는 본을 삼으라 츠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말흔 지라 너희가 육의
 인내를 드렸거니와 유가 나종에 엇더케 행하신 거슬 신히 보앗스니 유는
 그 장 즈비하시고 긍휼히 녀이느자시니라 ○ 내 형제들아 데일 요긴흔 거시
 이 거시니 밍세하지 말나 하늘노나 싸으로나 말고 아모 다른 밍세라도

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네 하라면 네 하고 아니라 하라면 아니라 하야
 죄덩흠을 면하라 ○ 너희 중에 고성하느자가 있느나 더는 기도할 거시오
 즐거워하느자가 있느나 더는 찬송할 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나
 더가 교회의 장로를 청하야 주의 일흠으로 기를 바르며 위하야 기도하케
 하라 밍흠으로 하느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유색서 나르지실
 거시오 더가 죄를 범하였슬 지라도 사하심을 엇으리라 이럼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야 서로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군구하느
 거시 운동하느 힘이 만하니라 엘니야는 우리와 곱흔 성정이 잇는
 사람이로되 더가 비 오지안케 하 시기를 근절히 기도하주 싸에 삼년 륫월을
 비가 아니 오고 신포 다시 기도하주 하늘이 비를 느리고 싸이 열미를
 내엿느니라 ○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야 진리를 떠난자를 누가
 도라서게 하면 맛당히 알 거슨 이 거시니 죄인을 미혹흔 길에서 도라서게
 하느자가 령흔을 구원하야 죽지안케 하고 허다흔 죄를 덥흐리라

베드로 전

베드로가 각처에 보낸 전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스도 베드로는 덕을 신자 곧 본도와 갈나디아와 갑바도가 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흠히 진나그내의게 편지하노니 이 덕을 신은 하는 남
 아바지 써서 미리 아시고 성신이 거룩하게 하샤 순종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림을 얻게 하심이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게 더욱 만홀지어다 ○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지 하는님이 그 만흔 신
 공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곰 거듭나게 하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씻지도 안코 더럽지도 안코
 쇠하지도 아니하는 고업을 닦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시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넘어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리니 이제 혹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야 잠간 근심하였슬 지라도 이 구원을 인하여 너희가 크게
 깃버하도다 너희의 련단한 믿음으로 하여곰 불노 련단하여도 업서 절

一
 二
 三
 四
 五
 六
 七

금보다 더욱 보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리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크게 깃버하니 이 즐거움은 다 말할수 업고
 지극히 영화로운 거시오 또 너희 믿음의 공효를 밋느니 곧 령혼을
 구원함이라 이 구원은 너희게 립할 은혜를 미리 말씀하던 선지자들이
 깃히 궁구하야 슬피서 조귀속에 계시 그리스도의 신이 그 밋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야 어느 시 엿더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흔지라 이 모든 거슬 조귀를 위하여 베프는 거시 아니오 너희를
 위하여 베프는 줄을 묵서로 알게 하섯스니 이 거슨 하늘노브러 보내신
 성신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제 너희게 고흔 거시오 련스들도
 또한 슬피 보기를 원하는 거시나라 ○그런고로 너희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존절하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게 립할 은혜를
 온전히 보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조식이 되었스즉 이전 알지못할
 때에 죽던 스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자의 거룩하신대로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베드로 전 일장

칠십삼십소

너희도 모든 형실에 거룩홀지이다 ^六대개 괴룩홀되 닐넛스디 내가 거룩홀니
 너희도 거룩홀지이다 ^七호셨느니라 ^八외모로 보시지 안코 각 사람의 형홀대로
 심판하시느자를 너희가 아바지라 부른즉 나그내로 잇슬 때를 맛당히
 두려움으로 지내라 ^九대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홀 망녕된
 형실을 버리고 구속홀을 얻은 거슨 업서 질은이나 금으로 홀 거시 아니오
^{一〇}오직 보비로운 피로 홀 거시니 ^{一一}홀도 업고 ^{一二}덤도 업는 어린양 ^{一三}호흔
^{一四}그리스도의 피니라 ^{一五}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홀기 전브터 미리 아신바가
^{一六}되차요 이 말세에는 너희를 위하야 나타나섯스니 ^{一七}너희가 그리스도를
^{一八}힘납어 하느님을 믿으며 하느님이 디를 죽은 가운데서 살나시고 영광을
^{一九}주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느님께 잇게 호셨느니라 ^{二〇}너희가 진리를
^{二一}순종홀므로 너희령홀을 썩긋호게 하야 거긋이 업서 형태를 사랑호기에
^{二二}니르럿스니 열심으로 피츠 사랑하라 ^{二三}너희가 거듭난 거서 썩어 질씨로 된
^{二四}거시 아니 오썩지 아니 할씨로 된 거시니 ^{二五}곳하느님의 살아잇고 호상 잇는
^{二六}도로 되엿느니라 ^{二七}대개

二

모든 육례는 풀과 ^二호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썩과 ^三호흐니 풀은
^四모르고 썩춘 썩러지되 ^五오직 주의 말씀은 세계도록 잇느니라
 너희게 전홀 복음이 곳 이 말씀이니라
 그런코로 모든 악독과 모든 궤홀과 외식과 식과와 모든 비방호는 말을
^二버리고 ^三가난이 너희가 져를 스모호는 것 ^四긋 궤홀이 업는 ^五도의 져를 스모호라
^六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츄츄 자라 구원에 이르리라 ^七너희가 임의 주의
^八즈비호심을 맛보앗스즉 ^九그리홀지이다 ^{一〇}주는 살으신 돌이라 ^{一一}사람의게는
^{一二}버린바가 되엿스나 하느님께는 티홀신 보비로운 돌이니 ^{一三}너희가 그의게
^{一四}나야 간즉 너희도 산들이 되여 세움을 넘어 신령홀 집이 되고 거룩홀
^{一五}제사장도 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이 깃브게 밝으실 신령홀
^{一六}제사를 드릴지니라 ^{一七}대개 성경에 기록호엿스디
^{一八}불지어다 내가 집 모퉁이 요긴홀 돌을 시온에 두노니 ^{一九}곳 티홀
^{二〇}보비로운 돌이라 ^{二一}더를 믿는자는 붓그립지 아니호리라
^{二二}호엿스니 ^{二三}그런코로 믿는 너희게는 보비가 되고 ^{二四}밋지 아니호는 자의게는

베드로 전 일장

철벽삼십칠

장인의 밧린 돌 곳집 모퉁이에 머리 돌이 되고

부디치는 돌과 것치는 반석이 된지라

대개 너희가 도를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머지는니 이는 너희를 이러케
 영혼신거시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 ^九또흔 제사장들이 오거 특할
 나라이오 그의 었으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너 어두운 되셔 나와서
 괴이할 영광에 드러가게 하신자의 아름다온 거슬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十하느님의 백성이오 전에는
 공홀한 심을 었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十一}공홀한 심을 었었느니라 ○ 사랑하
 자들아 나그내와 형인 ^{十二}또흔 너희를 권하노니 맛당히 령혼을 거스려
 싸호는 육체의 정욕을 떨나하라 너희가 이방 사람들 중에서 형실을 선히게
 하야 너희를 형악한다 고 ^{十三}비방하는 자로 하여곰 너희 선히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十四}하느님께 영화를 돌니게 하라 ○ 너희가 인간에 모든
 세운 법률을 주를 위하야 ^{十五}순복하되 왕은 우에 잇스니 그리하고 방벽은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왕이 보내여 ^{十六}형악하는 자를 징벌하고 ^{十七}선행하는 자를 포장하니 그리하라
 하느님의 뜻은 었더 하신고 하니 너희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게 하시느니 너희가 ^{十八}조유하나 조유함으로 악독을 무리우지 말고
 오직 하느님의 종으로 ^{十九}행하라 너희가 못사름을 공경하고 형대를 사랑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 ^{二十}스환된 자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주인의게 순복하되 ^{二十一}선하고 온유한 자의게 만 아니라 ^{二十二}또흔 사다로운 자의게도
 그리할지 어다 ^{二十三}사람이 이 미히 고난을 밧아도 하느님을 칭감하고 ^{二十四}춤으면
 이는 아름다오나 ^{二十五}너희가 죄가 잇서 미를 맛고 ^{二十六}춤으면 무슴 칭찬이
 잇스리오 오직 ^{二十七}선을 행함으로 ^{二十八}고성을 밧고 ^{二十九}춤으면 이는 하느님 압혜
 아름다오니라 이를 위하야 너희가 부르심을 남엇스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야 ^{三十}고난을 밧으샤 너희게 본을 세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신지라
^{三十一}더는 죄를 범치아나 하시고 그 입에 궤홀도 업스시며 ^{三十二}욕을 밧으시되
 욕하지아나 하시고 ^{三十三}고난을 밧으시되 ^{三十四}말약하지아나 하시고 오직 ^{三十五}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의게 조기를 부탁하시며 ^{三十六}천히 나무에 달녀 그 몸으로 우리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베드로 전이장

철벽삼십구

죄를 담당하셨스니 이는 죄에서 죽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의를
행하게 하시니라 더가미를 마자 상함으로 너희는 곧침을 얻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곧
감독의게 도라왔느니라

안히 된 자들이 이와 같이 그 남편의게 순복하라 그리하면 도를 순종치
안는 자가 비록 그 큰침은 밧지 아닐지라도 그 안히의 행위로 말미암아
감화하시니 이는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씌우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같이 외모에 단장하지 말고
오직 믿음에 숨은 사랑을 업서 지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시니 온유하고
단정하고 성품으로 사랑이 있는 하느님 압해 지극한 보비니라 대개 넷적에
거룩한 부녀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를 깨 단장하라 그 남편의게 순복하였느니라
가령 사랑가 아브라함의게 복종하라 유라 청하였스니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모 두려운 일에 두려워 놀나지 아니하면 곳 사랑의 열매가 되리라 또 영
남편 된 자들이 지식을 따라 안히와 함께 살고 귀히 되접할 것은 너희 인은

너 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오 또 영성의 은혜를 흠씩 누린 자가 됨이니
이러케 하면 너희 과도가 막히지 아니하시라 ○ 동이 말하노니 너희가 다
믿음을 갖치 하여 피차 데우며 형제 같이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로혀 더를
위하여 복을 빌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스니 복을 더 내게
하시니라 대개

성명을 사랑하고 도흔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맛당히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브리며 그 입으로 궤활을 말하지 말고 악을 피하여 선을
행하고 화목을 구하여 죽이라 주의 눈은 온 온 사람을 도라보시고 그
귀는 더 근구함을 드르시되 주의 낮은 행악하는 자를 감찰하시느니라
말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려 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성을 밧으면 복이 있느니라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믿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사탄을 못는 자가 잇거든 항상 예비하였다가 온유하고

十六 두려움으로써 디답하고 맛당히 량심대로 행하라 이러케 하면 너희가
 十七 비방받을 때에 너희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함을 육하는 자가 붓고러워
 十八 항리라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성 밋는 거서 하는님의 뜻일진대 악을
 十九 행함으로 고성 밋는 것보다 나으니라 대개 그리스도가 한번 죄를 위하야
 二十 고난을 밋으샤 곳의인으로서 불의한자를 디선하셨스니 이는 우리를 인도하야
 二十一 하느님 압해 니르케 하심이라 그 육테로는 죽고 그 신으로는 살게 하셨스니
 二十二 더가 또 할 그 신으로써 가셔 육에 잇는 신의게 반포하신지라 그들은 넷쳐
 二十三 노아의 날에 방슈 예비할 동안을 하는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二十四 순종치 아니하던 신이라 방슈에 드러간자가 만치안코 물노 말미암아
 二十五 구원을 엇은자가 다만 여덟명이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二十六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곳 세례라 육테의 더러운 거슬 써서
 二十七 브림이 아니오 오직 량심이 하느님을 향하야 차자가 거서라 더는 하늘에
 二十八 을으샤 하느님 우편에 계시니 모든 텨스 와 권세 잡은자와 능력 잇는자가
 二十九 다 순복하는니라

一 그리스도가 임의 육테에 고난을 밋으셨스니 너희도 또 할 그 믿음으로
 二 갑옷을 삼으라 대개 육테에 고난을 밋은자는 죄에서 버셔났스니 그 후로는
 三 사람의 정욕을 좃지안코 하느님의 뜻대로 육테의 남은 썸을 지낼 거서라
 四 너희가 이방 사람의 뜻을 좃차 행할 거시 지나간 때가 죽하니 음란과
 五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함과 밋 우상의게 절하는 흉악한 일을
 六 행하였도다 이럼으로 너희가 더회와 못치 극히 방탕한 디덤비지 아니하는
 七 거슬 더회가 이상히녀여 비방하나 더회가 산자와 죽은자 심판하기를
 八 예비하신자 압헤서 직고하리라 대개 죽은자의게도 복음을 전할 거시
 九 다름아니라 그 육테로는 사람 처럼 심판을 밋고 그 신으로는 하느님 처럼
 十 살게 흠이니라 ○ 만물의 모즈막이 갓가왔스니 그런고로 맛당히 정심을
 十一 츠리고 존절히 흠으로 괴도하라 데일 기할 거슨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十二 거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그리우느니라 서로 디접하기를 원망 업시
 十三 하고 각각 은혜 밋은대로 서로 섬기기를 하는님의 각양 은혜를 맛흔
 十四 선한자 못치하라 만일 누가 말하랴면 하는님의 그리치심으로 하고 누가

베드로 전 삼장

철벽스심삼

일하랴 면하는 주의 힘으로 할지 어다 이는 범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계에
 있는 니라 아멘 ○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불무에 려 단 것은 것 및 처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할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함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음은 영광의 신통하는 님의 신이 너희에게 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던지 살인이나 도적이나 행악이나 님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며 너희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붓고 러워 말고 오직 그
 일함으로 하는 님의 영광을 돌리라 뼈가 나른 지라 하는 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시리니 만일 우리에게 묻지 않으면 하는 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
 하는 자의 그 머리가 엷어지며 만일 을 혼자가 거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 할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오 그런 교로 하는 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선을 행하여 그 영혼을 밋브신 조물주께 부락할 지이다

三

너희 중 장로들의 권하노니 나는 및 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증거하는 자요 또 장축 나타날 영광을 및 처 누릴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는 님의 양 무리를 가르며 슬피 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는 님의
 뜻을 좃차 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리를 도모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너희가 맛흔 자의게 주장 된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쇠하지 아니 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또 너희 젊은 자들이 장로들의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겨 겸손함으로 옷 입듯하라 대개 하는 님이 교만 한 자를 버리시며
 겸손한 자의게 은혜를 주시니 그런 교로 스스로 겸손하여 하는 님의
 능하신 손아래 순복하여 피약에 이르러 너희를 높히시게 하라 너희 모든
 념려를 다 주의 맛겨 버릴 지이다 대개 여가 너희를 권고하시니 나
 맛당히 존절하며 서여라 너희의 덕 마귀가 우는 스즈와 및 처 두루
 돈니며 삼킬 자를 찾는 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덕하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이 및 처 고난을 받는 줄을 알나 모든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를 부르샤 영원한 영광에 드러가게 하신 하나님
 천히 너희로 하여곰 잠간 고난을 받은 후에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리라 능력이 세계에 그의게 잇슬지어다 아멘 ○ 내가 신실한
 형대로 아난 실와 노편에 두어 즈를 너희게 붙쳐 권하고 하는님의 충된
 은혜를 증거하노니 너희는 그 가온디 굳게 서라 너희와 함께 된 심을
 받은 바벨론에 잇는 교회가 너희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하여 입맞춤으로 피츠 문안하라 ○ 그리스도 안에 잇는 너희
 다 평강이 잇슬지어다

(Faint bleed-through text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베드로 후

베드로가 각처에 보낸 후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 된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는님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납어 우리의 밝은 것 처 보미로온 믿음을
 밝은자의게 편지하노니 하는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님이 그 신과 능력으로 성령과 경건함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의게 주셨스니 이는 그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또한 이로써 그 보미롭고 지극히 큰
 허락들을 우리의게 주샤 이 허락을 인하여 너희로 하여곰 제상에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신의 성품을 잇게 하셨스니 이럼으로 너희가
 온전히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화목을
 더하고 형제 화목에 사랑을 더할지니 이런 거시 너희게 잇서 충만하
 너희로 하여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안코 열미를

九 업지안케 하려니와 이런 거시 업는자는 눈이 어두어 원시 처 못하고 그 전
 十 죄를 세극하게 하심을 니젓는니라 그런고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十一 부르심과 덕을 심을 곳에 하라 만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행하즉 언제던지
 十二 실족하지 아니하시니 이 못치 하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十三 영원한 나라에 드러감을 너너히 너희게 주시리라 ○이럼으로 비록 너희가
 十四 이 모든 것을 알고 너희게 잇는 진리에 굳게 섰스나 내가 반드시 항상
 十五 너희로 하여곰 괴역케 하려하노라 내가 오히려 이 장막에 잇슬 동안에
 十六 너희를 날쳐워 괴역케 함이 올흔줄 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十七 임의 내게 지시하심 못치 내가 이 장막을 버셔날 때가 립할흔줄을 알고
 十八 힘써 너희로 하여곰 내가 썩난 후에라도 이런 것을 미양 괴역하게 하노라
 十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게 고하거시 공교히
 二十 뵈이니 대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흔 소리가 나와서 너희게 들렸스되
 二十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깃터하는 자라 항상 때에 더가 하는님

一 아바지씨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지라 이 소리는 우리가 더와 함씩 거룩한
 二 산에 잇슬 때에 하늘로 좃차 나옴을 드렸노라 또 우리게 잇는 예언이
 三 더욱 확실하야 어두은 티 빛최는 등불과 못흐니 날이 새매 새별이 너희
 四 믿음에 썩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것을 슬피는 거시 아름다오니라 문져 알
 五 거슨 다름아니라 성경에 모든 예언은 스스로 풀 거시 업는니 대개
 六 예언은 언제던지 사람의 뜻으로 낸 거시 아니오 오직 사람이 성신의
 七 감동하심을 넘어 하는님씩 받아 말한 거시니라
 八 그러나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니러났섯는니 이와 못치 너희중에도 장차
 九 거짓 스승들이 잇서 멸망케 할 이단을 구만히 식을어 드러 조그를 구속하신
 十 주를 비방하고 속히 멸망함을 스스로 취하시니 장차 여러 사람이 너희
 十一 호직하는 것을 좃칠지라 너희를 인하여 진리의 도가 휘방을 받을 거시오
 十二 너희가 람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리를 삼으니 너희 심판은
 十三 넷적브터 더된 거시 아니오 너희 멸망은 자는 거시 아니라 하는님이 죄를
 十四 범할런스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더욱에 던져어두은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5 때서지 직히게 하셨으며 또 넷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되 다만 의를
 6 전파하는 노아의 여덟식구를 보존케 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세상에 홍수를
 7 림하게 하셨으며 또 서돔과 고모라 두성을 멸망하기로 영하야 저가 되게
 8 하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의게 표를 삼으셨으며 다만 의로운 뜻을
 9 의인이 너희 중에 거하야 날 마다 더 불법을 행실을 보고 드름으로 그
 10 의로운 믿음을 상하느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11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머물너 두어 심판 날까지 직히실 일을 아시느니
 12 더러운 정욕을 인하야 육체를 따라 행하며 주관하는 거슬 멸시하는 자의게
 13 특별히 형벌하시느니라 이 무리는 담대하고 고집하야 열지안코 영광
 14 잇는 자를 훼방하거니와 너희보다 능력과 권세가 진큰 텃스는 주압해서
 15 훼방하는 말도 용서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무리는 본리 무지하야 잡혀
 16 죽기를 위하야 난 증심¹³ 갓하야 그 아지못한 거슬 훼방하고 님을 멸망케
 17 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불의¹³를 행하다가 불의의 갑슬 밧느니 너희는

18 밧주에 연락을 짓버하느니라 곳덤과 흠이 나 너희로 더브러 자리에 갓치
 19 할 때에 그 간사함에 연락하며 그 눈은 음녀가 그득하야 범죄하기를
 20 쉬지 아니하고 또 곳세지못한 믿음¹⁴을 유혹하며 지귀¹⁵ 믿음¹⁴이 탐람에
 21 니속하니 곳져주의 지식이라 너희가 바른 길을 켜나 미혹하야 브올의
 22 아들 발남의 길을 좃는도다 그는 불의의 사을 도하다가 그 불법함을
 23 인하야 천망을 밧으되 말못하느라 귀가 사름의 소리로 말하야 이 선지자의
 24 밧천 길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무리는 물 업는 심이 오 광풍에 밀려가는
 25 안키니 너희를 위하야 감감한 어두음을 머물너 두신지라 너희가 허탄한
 26 조랑의 말을 하야 미혹한 디행하는 무리의게서 겨우 버셔난 자를 육체의
 27 정욕 중에 음란으로 써 유혹하야 그들의게 조유를 준다 하여도 지귀는
 28 멸망의 종이니 대개 진자는 이 권자의 종이 되느니라 만일 너희가 우리
 29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버셔난 후에 다시
 30 그 중에 엇디이코지면 그나 종이 처음 보다 더 심하리라 대개의 의도를
 31 알고도 밧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못하는 거시 도로혀

三 너희가 내니라 ^三 참 속담에 ^三 날은 기를 깨가 그 도우엿던 거슬 도로 먹고
 도야지가 썩섯다가 다시 더러운 구멍이에 누엇다 ^三 호는 말이 너희게
 응응엿도다

三 사랑응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들재 편지를 너희게 보내노니 이 들노 너희
 二 진실흐 ^二 믿음은 빌세워 기억응게 호는 거시 거룩호 션지자도 예언호 말슴과
 三 주 되신 구유가 너희의 스도들노 말미암아 명응신 거슬 기억응게 흠이니
 三 먼저 알 거슨 말제에 기억응는 자들이 니러나셔 스도의 정욕을 좃차 힘응며
 三 기억응야 ^三 믿음의 주의 강림응신다는 허락이 어디 잇는도 조상이 잔
 三 후로 브러 만물이 창조호를 때와 ^三 못치 머물니 잇다 응니 대개 하늘이
 三 때적 브러 잇는 것과 싸이 물노 나와서 물 가온디 섰는 것도 하느님의
 三 말슴을 힘응어 된 거슬 너희가 부러 니조려 응는도다 그 때에 세상이 물의
 三 침침으로 멸망응엿스되 이제 권디를 썩호인 그 말슴으로 불살오기 위응야
 三 짜하 무사 경건치 아니호 사람들을 심판응야 멸망케 호실 날사지 니르케
 三 응시느니라 ○ 사랑응는 자들아 이 호 가지를 너지 말지니 주의는 호로가

九 천년 ^九 두고 천년이 호로 ^九 두흔지라 후이 주가 천락을 일으키는 거시 더디다
 十 호나 실상은 더딘 거시 아니라 오직 너희를 티응야 오래 참으샤 호나도
 十 멸망치안료다 ^十 회개호기에 니르기를 원응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十 못치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온 소리로 썩나가고 ^十 레질이 썩거온 불에
 十 푸러지고 싸와 그 중에 잇는 모든 거시 드러나리도다 이 모든 거시 이리케
 十 푸러지리니 너희가 엿더호 사람이 되야 맛당응겜는도 거룩호 형실과
 十 十 경건함으로 하느님의 날이 나타나기를 바라모고 스모호라 그 날에 하늘이
 十 불에 든서 푸러지고 레질이 썩거온 불에 녹아지려니와 ^十 우리는 그 천락
 十 응신대로 재 하늘과 재 썩를 바라보니 의가 거미 거호리라 ○ ^十 그런코로
 十 사랑응는 자들아 너희가 이 거슬 바라보니 힘써 주압해서 호노 열고 ^十 최망도
 十 열시 ^十 평강 엿음을 나타내고 ^十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줄노
 十 녀이라 우리 사랑응는 형제 바울도 그 ^十 밝은 지혜대로 너희게 보낸 편지가
 十 이와 ^十 두고 썩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말응엿스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十 거시 더러 잇스니 무식호자와 맛응이 못제지 못호자가 다른 성경을 푸는

一 것 또한 그 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취하느니라 [†]그런 교로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이 것을 미리 알았스즉 삼가 악한 사람의 미혹에
 二 잇선을며 너희 곳엔 마음을 일통가 두려워하라 다만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면을 아는 줄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 날까지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 一

보낸 첫 편지

一 처음부터 있던 생명의 도를 의뢰한대 곧 우리가 드문바요 굳으로 본바요
 二 두째히 상교온바요 손으로 모친바라 이 생명이 임의 나라갓스니 아바지와
 三 온가지 계시다가 우리의게 나타나진 영성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증거송야
 四 너희게 전송노라 우리가 본바와 드문바로 써 너희게도 전송은 너희로
 五 우리와 스펴께 송려함이니 우리의 스펴은 아바지와 그 아들 예수
 六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것됨으로 참만케 함이로라 ○
 七 우리가 너희게 드문바로 너희게 전송노는 것은 곧 이 말씀이니 하느님은
 八 이에 빛치시라 될듯 만치도 어두움이 생스시니라 만일 우리가 말송기를
 하느님과 스펴였다 호고 어두운 디 형송면 곧 거짓 말을 송고 진리를
 九 좃지아니함이니와 여가 빛 가운데 계시진 것 및치 우리도 빛 가운데
 十 형송면 우리가 서로 스펴고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곳송게 써서 보릴 거시오 만일 우리가 죄 생다 송면 스스로

九 속임이니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十 고하면 이는 밋밋고 의로오사 우리 죄를 사함시며 우리 모든 을 치어 남
 十一 거를 썬듯 응게 써서 브리실 거시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十二 면 못하느님이 거짓 말할다 응느자니 그 말씀이 또한 우리 마음에
 十三 있지 아니하니라
 十四 나의 쇼츠를아 내가 이 글을 써서 너희게 보내는 거슨 너희로 하여금
 十五 죄를 범치안케 함이니 만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우리를 위하야 아바지
 十六 합해 티인자가 있스니 못 의로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우리 죄를
 十七 위하야 화목제가 되셨스니 다만 우리 죄 만 위할 뿐아니오 또한 원 제상의
 十八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를 인하야 다를 아느닐노
 十九 스스스로 알 거시오 다를 아노라 응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응느자는 거짓
 二十 말응느자오 진리가 그 마음에 있지 아니응되 무릇 그 말씀을 지키느자는
 廿一 하느님의 사랑이 실노 그 마음에 잇서 온전함을 일우느니 이로 말미암아
 廿二 우리가 주 안에 있느들을 가히 알지라 그 안에 거할다 응느자는 맛당히

廿三 그의 형용신대로 형용지니라 ○ 사랑응느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써서
 廿四 너희게 보내는 거시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받은 옛 계명이니 이 옛
 廿五 계명은 너희가 드른바 도여니와 다시 말하랴면 내가 써서 너희게 보내는
 廿六 거시 새 계명이라 할지니 주재도 참되고 너희게도 참된 거슨 어두운 거시
 廿七 임의 지나가고 참 빛이 지금 빛철크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응며 그 형대를
 廿八 위하응느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느 거시오 그 형대를 사랑응느자는
 廿九 빛 가운데 잇서 조과 속에 거리셀 거시 영생을 거시오 오직 그 형대를
 卅 위하응느자는 어두운 티 잇고 또 어두운 티 든니며 갈 곳을 아지 못하느니
 卅一 이는 어두운 거시 그 분을 멀케 함이라 ○ 쇼츠를아 내가 이 글을 써서
 卅二 너희게 보내는 거슨 너희 죄가 그 일함으로 사함을 얻음시오 부모들아
 卅三 내가 이 글을 써서 너희게 보내는 거슨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
 卅四 쇼츠를아 내가 이 글을 써서 너희게 보내는 거슨 너희가 악한자를 이림이오
 卅五 오희들아 내가 이 글을 써서 너희게 보낸 거슨 너희가 아바지를 알미오
 卅六 부모들아 내가 이 글을 써서 너희게 보낸 거슨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이를

一 알미오 소년들아 내가 이 글을 써서 너희게 보낸 거슨 너희가 강건하고
 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자를 이범이라
 三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를 사랑치말나 사람이 만일 세상을 사랑하면
 四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대개 세상에 있는 모든 거슨
 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조망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六 거시 아니오 세상으로 좇아 온 거시라 이 세상도 가고 그 정욕도 가되
 七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세상에 있스리로다 ○ 너희들아 지금은
 八 무릇막 썬라 너희도 드르바 덕그리스도가 니르겟다 흠과 못치 지금도
 九 암의 썬라 덕그리스도가 니러났스니 이럼으로 우리가 지금이 무릇막
 一〇 썬인줄 아노라 너희가 우리의게서 나간자나 본티 우리의게 속함자는
 一一 아니니 만일 우리의게 속하였더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거시어늘
 一二 너희가 나간 거슨 다 우리의게 속하지 아니함을 밝히 나타냈이니라 너희는
 一三 거룩한 성자의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거를 아나니 내가 이 글을 써서
 一四 너희게 보낸 거슨 너희가 진리를 알지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一五 인함이오 또 진리를 좇아서는 아모 거짓 말도 염심을 인함이라 거짓
 一六 말송는자가 누구뇨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못한다 송는자가 아니뇨
 一七 아버지아 아들들 티반송는자는 못데 그리스도니 아들들 티반송는자의게는
 一八 또흔 아버지가 염스되 오직 아들들 안다 송는자의게는 또흔 아버지가
 一九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브러 드른 거를 항상 너희 속에 거하게 송라 만일
 二〇 처음브러 드른 거시 항상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항상 아들의 안과
 二一 아버지의 안에 거하시라 이 거시 우리의게 취락한 성령이니 곧 영성이니라
 二二 내가 이 글을 써서 너희게 보낸 거슨 너희를 미혹케 송는 자를음을 말물
 二三 거시어니와 너희는 주께 받았은바 기름 부음이 항상 너희 안에 거하시니라
 二四 너희가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거시염코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거를 너희게
 二五 가르치며 또 충되고 거짓 거시염스니 이 거시 너희를 가르침대로 항상 주
 二六 안에 거송라 쇼츠들아 이제는 그 안에 항상 거송야 우리로 송서공 주가
 二七 나타나샤 강림송실 썬에 못제셔 그 알헤셔 못그러움은 염게 송라 너희는
 二八 그가 의로우신줄을 알면 의를 행송는자 마다 그로 말미암아 난줄을 알니라

一 불지어다 아바지씩셔 엇더흐 사랑으로 우리의게 주샤 하는님의 자녀라
 二 닐그름을 엇게 하섯는요 우리가 좃그려호도다 세상이 우리를 아지 못호는
 三 거슨 그를 아지 못호이니라 사랑호는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는님의 자녀라
 四 장리에 엇더케 될 거슨 아직 나타나지 아니호였스나 오직 그가 나타나시면
 五 우리가 그와 갓출을 아는 거슨 그 좃모양 불 거슬 인함이니 주를 향호야
 六 이 소망이 잇는자 마다 죄를 색긋호게 호기를 그의 색긋호심과 갓치
 七 호는니라 죄를 짓는자는 불법을 행호는니 죄는 곳 불법이라 그가 우리
 八 죄를 업시호라고 나타나신 거슬 너희가 아는바니 그는 죄가 업스신지라
 九 그안에 거호는자 마다 죄를 범호지 아니호고 죄를 범호는자 마다 그를
 一〇 보지 못호고 그를 아지 못호였는니라 쇼즈들아 사름의 미혹을 받지 말나
 一一 의를 행호는자는 의로와 그의로오심과 갓고 죄를 범호는자는 마귀의게
 一二 속함이니 대개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호는지라 이로써 하는님의 아들이
 一三 나타나샤 마귀의 일을 멸호려호시는니라 하는님께서로셔 난자 마다 죄를
 一四 짓지 아니호는니 이는 하는님의 씨가 그속에 잇슴이오 더도 썩호범죄치 못호는

一 거스하는님께서로셔 남이라 이럼으로 하는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二 나타나니 의를 행치아니호는자는 하는님께서 속호지 못호고 형대를
 三 스랑치아니호는자도 그러호니라 우리가 서로 스랑호지니 이는 너희가
 四 처음부터 드른 말씀이라 가인 갓치 호지 말나 더는 악호자의게 속호야 그
 五 아오를 죽였스니 엇진연고로 죽였는요 조괴의 형호일은 악호고 그 아오의
 六 형호일은 의로움이라 ○ 형대들아 세상이 너희를 위워호거든 이상히
 七 녀이지 말나 우리가 형대를 스랑호므로 죽음에서 나와 생명에 드러간 줄을
 八 알거니와 스랑치아니호는자는 죽음에 거호는니라 형대를 위워호는이는
 九 곳살인호는자니 무릇살인호는자의게는 영성이 그속에 거호지아니호는
 一〇 거슬너희가 아는바라 그가 우리를 위호야 그 목숨을 브리섯스니 우리가
 一一 이로써 사랑을 알코 우리도 썩호 형대를 위호야 목숨을 브리는 거시
 一二 맛당호거니와 만일 누가 세상지물이 잇고 형대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아 줄
 一三 미움을 막으면 하는님의 사랑이 엇지 그 미움에 거호가보나 쇼즈들아
 一四 우리가 스랑호기를 말과 혀로만 호지 말고 다만 형호와 진실함으로 호자

十九 이로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압해서 곧 세계
 十八 할리로다 우리 마음이 후 우리를 칭망할 일이 있거든 할지며 우리 마음
 十七 보다 크시고 아지못하는바 업스신 하는닐일가보냐 사랑하는자들아 만일
 十六 우리 마음이 우리를 칭망할 거시 업스면 하는닐 압해서 담대하고 무릇
 十五 구하는바를 그의게 엿는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직히고 그 압해서
 十四 깃버하시는 거슬 칭함이라 그 계명은 이 거시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十三 일흔을 밋고 또 그가 우리의게 명하신대로 서로 사랑할 거시니라 그 계명을
 十二 직히는자는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니 우리의게 주신
 十一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니라
 十 사랑하는자들아 신을 다 밋지 말고 맛당히 그 신을 시험하여 하는닐씨로
 九 나왓나 보라 거짓 선지자가 만히 세상에 나왓는니 하는닐씨로 나온 신은
 八 알 거시 이 거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례로 감림하셨다 하는닐 신은
 七 하는닐씨로 나온 거시오 무릇 예수를 모른다는 신은 하는닐씨로 나온
 六 거시 아니라 곧 덕그리스도의 신이니 너희 드른바 장차 니른다 하던 것



四 곳치 이제 임의 세상에 잇는니라 쇼즈들아 너희는 하는닐씨 속하였고
 三 또 더 무리를 이기엿는니 대개 너희 안에 계신이가 세상에 잇는이 보다
 二 크시도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할때 세상이 듣는
 一 거시오 우리는 하는닐씨 속하였스니 하는닐을 아는자는 우리를 듯고
 九 하는닐씨 속하지 아니할자는 우리를 듯지 아니하는니 진리의 신과 거짓의
 八 신을 이로서 아는니라 ○ 사랑하는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대개
 七 사랑이 하는닐씨 속한 거시니 사랑하는자 마다 하는닐씨로 나쳐하는닐을
 六 알되 사랑하지 아니하는자는 하는닐을 아지못하는니 대개 하는닐은 곧
 五 사랑이시라 하는닐의 사랑이 우리의게 이러케 나타났스니 곧 하는닐이
 四 독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샤 우리로 하여곰 더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는니라
 三 사랑은 여과 잇스니 우리가 하는닐을 사랑할 거시 아니오 하는닐이 우리를
 二 사랑하야 그 아들을 보내샤 우리 죄를 위하야 화목제가 되게 하시니라
 一 사랑하는자들아 하는닐이 이 곳치 우리를 사랑하셨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시 맛당하도다 네로브터 하는닐을 본 사람이 업스나 만일

요한 一 스장

철벽록십삼

1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는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2 온전함이 되느니라 ¹³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3 우리의게 그 성신을 주심으로 아느니라 ¹⁴아바지가 아들을 보내샤 세상의
 4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¹⁵누구던지 예수를
 5 하는님의 아들이라 하는 자의게는 하는님이 더 안에 거하시고 더도 하는님
 6 안에 거하는니라 ¹⁶하는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임의 알고
 7 밋노니 하는님은 곧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는님 안에
 8 거하고 하는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¹⁷사랑이 우리의게 온전히 일운
 9 거슨 우리로 하여금 심판 날에 담대하게 함이니 ¹⁸대개 주가 었더하신 것
 10 못치 우리도 세상을 여셔 그러할지라 ¹⁹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11 사랑이 두려움을 내여 쫓느니라 ²⁰두려움에는 형벌의 넘려가 있고 두려워하는
 12 사람은 사랑을 온전함을 일우지 못하느니라 ²¹우리가 사랑을 그가몬져
 13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²²사람이 만일 하는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대를
 14 뒤워하면 이는 거짓 말을 하는 자니 ²⁵보는 형대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五

1 보지 못하는 하는님을 사랑할 수가 업느니라 ³하는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2 형대를 사랑할 거시니 이 거슨 우리가 주께 받은 계명이니라
 3 무릇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줄을 밋는 자는 이에 하는님색로 난자니 무릇
 4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난바를 사랑하느니라 ⁵우리가 하는님을
 5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직행즉 이로 말미암아 ⁶우리가 하는님의 자녀
 6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⁷하는님을 사랑하는 거슨 이 거시니 그 계명을 직하는
 7 거시라 그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⁸대개 하는님색로 난자 마다
 9 세상을 이피느니 ¹⁰세상을 이피는 이김은 곧 우리의 밋음이라 ¹¹세상을
 12 이피자가 누구뇨 예수가 하는님의 아들이심을 밋는 자가 아니뇨 이는 이에
 13 물과 피로써 림을 씻고 증거하는 이는 성신이시니 ¹⁴성신은 곧 진리니라 ¹⁵대개
 16 증거하는 자가 세시 잇스니 ¹⁷성신과 물과 피요 이 세시 또한 합하여 하나이
 18 되느니라 ¹⁹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밋을진대 ²⁰하는님의 증거는 더욱
 21 크시니 ²²하는님의 증거는 곧 그 아들을 위하여 증거하였다 ²³하심이니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의 안에 증거가 있고 하느님을 믿지 아니
⁺하는 자는 하느님을 거짓 말한다 ⁺하느니 이는 하느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지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 증거는 이 거시니 하느님이
⁺우리의게 영성을 주었다 ⁺항시 고 ⁺또 이 영성은 그 아들의게 있다 ⁺항시
⁺거시라 ⁺그 아들이 있는 자의게는 영성이 있고 하느님의 아들이 없는 자의게는
⁺영성도 업느니라 ⁺○ 내가 이 글을 써서 하느님의 아들의 일들을 믿는
⁺너희게 보내는 거슨 너희로 하여곰 너희게 영성이 잇슴을 알게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할 거슨 그의 뜻대로 무어슬 구하면 드르심이 오
⁺우리가 무론 무어시던지 구하는 바를 드르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게 구할
⁺거슬 엇은 줄을 또한 알지니라 ⁺사람이 만일 형제가 죽는디 니르지 아니할
⁺죄를 범하는 거슬 보면 위하여 구할지어다 ⁺또한 죽는디 니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자의게 하느님이 영성을 주실 거시오 죽는디 니르지는 죄가
⁺잇스니 이를 위하여 내가 구하라 ⁺항시 못하노라 ⁺모든 불의한 거시 죄로되
⁺죽는디 니르지 아니하는 죄도 잇도다 ⁺○ 무릇 하느님께서 난자는 죄를

^{十九}범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느님께서 나신자가 더를 직히시매
^{十九}악한자가 더를 모지지도 못하느니라 ^{十九}또 아는 거슨 우리는 하느님께
^{十九}속한자요 원세상은 흉악한자의게 처하느니 ^{十九}또 알거니와 하느님의 아들이
^{十九}임의 니르러 우리의게 지각을 주샤 우리로 하여곰 출된자를 알게 하신지라
^{十九}우리가 또한 출된자 안에 잇는 거슨 곳 ^{十九}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十九}잇슴이니 이는 참하느님이시오 영성이시라 ^{十九}쇼즈들아 너희는 삼가 우상을
^{十九}피할지어다

요한 一一

수도 요한의
플레편지

一 장로는 락함심을 넘은 부녀와 그 즈녀의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실로
 二 사랑하는자요 다만 나쁜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자도 그리하는 거슨
 三 우리 안에 잇는 진리를 인함이니 곳 영원히 우리의게 잇슬 거시로다
 四 진리와 사랑 가온티 은혜와 공홀과 평강이 하는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게 잇스리라 ○ 너의 즈녀중에 우리가
 六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자를 내가 보니 심히 깃브도다
 七 거슨 새 계명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의게 잇는 거시니 사랑은 곳우리가
 八 그 계명을 좃차 행하는 거시오 이 계명은 곳 너희가 처음부터 드른바니
 九 사랑 가온티서 행하라 함심이라 대개 사를을 미혹하는자가 만히 세상에
 十 나 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립함을 안다 하지 아니하는 자라
 十一 곳 사를을 미혹하는자요 덕 그리스도니 너희는 맛당히 스스로 삼가 우리의

九 이씨 일흔 거슬 일치 말고 온전한 상을 엮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에
 十 거하지 아니하는자 마다 하는님을 스피지 못하되 교훈에 거하는자는
 十一 아버지와의 아들을 스피느니라 만일 사를이 너희게 나아가 전하는바가 이
 十二 교훈이 아니어든 너희는 집에 드리지도 말고 인스도 말나 대개 인스하는자는
 十三 곧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자니라 ○ 내가 너희게 말할 거시 만흐나 너희와
 十四 먹으로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게 가서 면티하고 말하야 너희 깃름이
 十五 총만케하기를 바라노라 락함심을 넘은 네 형제의 즈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一一
 수도 요한의
 플레편지

요한 三

소도 요한의 셋째 편지

장로는 사랑하는 벗 가이오의게 편지하노니 곳내가 진실노 사랑하는 자
 니라 ○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곳 처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근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를
 좇차 영혼다 함을 듯는 것 보다 더 즐거움이 업도다 ○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나그네 된 형제의게 영혼는 거시 신실할 일을 영혼이니 너희가 교회
 압해서 너의 사랑을 증거할지라 내가 하는 님씩 합당하게 너희의 로 즈를
 부조하는 거시 선하리로다 이는 너희가 주의 일음을 위하야 나가서 이방
 사람의게 아모 것도 받지 아니함이니 이럼으로 우리가 이 곳혼 사람을
 더 접하는 거시 맞당할지라 이는 우리로 하여곰 진리를 위하야 할가지로
 슈고하는 자가 되게 함이니라 ○ 내가 두어 즈를 써서 교회에 보내엿스나
 너희 중에 으뜸 되기를 도아하는 디오스레베가 우리를 접되하지 아니하니

이럼으로 내가 만일 가면 반드시 그 영혼 일을 닦지 아니하리라 더가 악한
 말노 우리를 망녕되히 의로하고 유위부족하야 형제들을 접되치도 아니하교
 접되하교져하는 자를 금하야 교회에서 내여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거슬 본받지 말고 선한 거슬 본받으라 선형을 하는 자는 하는 님씩 속하고
 악행을 하는 자는 하는 님을 뵈옵지 못은 자니라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이
 증거하교 진리도 증거하였스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나니라 ○ 내가 써서 내게 보낼 거시 만흐나 필묵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교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되하야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잇슬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니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유다

유다가 가져에 보낸편지

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오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의게
 二 편지하노니 이는 하는바지 안에서 사랑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三 위하야 보호함을 받은 자라 공회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게 더욱 말할지
 四 어다 ○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임의 힘을 다하야 우리가 할가지로 받은
 五 구원을 론난하는 편지를 써서 너희게 보내려다가 부득이하야 성도의게
 六 할번 만 주신 도리를 위하야 힘써 싸호라 하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노라
 七 대개 만히 드러온 사람 몇치 잇스니 곳 전부터 이 덩죄를 밋기로
 八 기록하라 너희가 경건치아니하야 우리 하는님의 은혜를 변하야 식욕을
 九 삼고 홀노나 이신 주저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니라 ○
 十 너희가 본리 범스를 아나 내가 너희로 하여곰 괴역하게 하고져하노니
 十一 주께서 빌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밋지아니하는 자들을 멸망케
 十二 하섯스며 또 제 디위를 직히지아니하고 그 처소를 썬난 려스들을 주셔서

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두운 가운데 가도샤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하섯거늘
 二 서독과 고모라와 그 리웃 고을이 그 모양을 본밧아 간음을 행하고 괴이한
 三 식을 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밋아 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나
 四 이러할자들은 삼속에 잇서 육례를 더러히며 정스 잡은 자를 업수히며
 五 영광 잇는 자를 휘방하거니와 오직 텨스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도아 모세의
 六 시례를 위하야 시비할 때에 감히 휘방하는 말도 판결하지아니하고 다만
 七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꾸지시리라 하였스나 오직 더 무리는 무어시던지
 八 그 아저 못하는 거슬 휘방하며 또 무어시던지 본리 아는 거시 무지한
 九 짐성의 아는 것조차니 너희가 이 거스로 멸망하느니라 화 잇슬진더 이
 十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며 사을 위하야 발남의 어그러진 길도 물너가며
 十一 고라의 패역을 좃차 멸망을 밋느니 너희는 너희로 더브러 죽치며 때에
 十二 너희의 연애 숨은 바회오 무서워함이 업시 제 몸만 기르는 목샤요 바람에
 十三 불너가는 물업는 구름이오 두번 죽어 썩리까지 썩힌 열미 업는 가을
 十四 나무요 조그의 붓그러운 거품을 썩는 바다의 밋친 물결이오 영원히

14 머물너 둔 어 두음의 감감한 거슬 밧을 류리하는 별이라 14 또 혼 아담의
 15 칠세손 에녹이 일족이런 사람의게 예언하여 날이디 불지어다 주씨셔 그
 16 성인 여러 만명과 함께 림야 못사름을 심판하샤 그 경건치아닌 믿음으로
 17 형혼 모든 경건치아닌 일과 또 경건치아닌 죄인의 광광한 말노 주를
 18 비방함을 언하여 모든 경건치아닌자를 덩죄하시리라 하였스니 16 이러
 19 사름들은 원망하는자며 스스로 할탄하는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자며 그
 20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는자며 리를 위하야 사름의 외모를 중히
 21 녀이는자니라 17 오직 자랑하는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22 스도가 미리 할 말을 기억하라 그가 너희게 말하기를 18 마
 23 괴롱하는 무리가 잇서 그 경건치아닌 정욕대로 행하리라 하였스니 이는
 24 곳당을 짓는자며 혼은 잇고 성신은 업는자니라 19 자랑하는자들아 너희는
 25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밋음 우에 스스로 세우고 성신의 감동함으로
 26 괴도하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직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27 긍휼을 바라 영성을 얻을지니라 20 엇던자는 의심하는자니 긍휼히 녀이고

28 엇던자는 구원하야 불에서 신을어 내고 또 엇던자는 무셔 위함으로
 29 긍휼히 녀이고 옷이라도 육례로 더러워진 거슬 뒤워하라 21 능히 너희를
 30 보호하샤 거리샘이 업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너희를 흠이 업시 그 영광
 31 압헤 세우실자 22 곳우리 구주 홀노 향나이신 하느님께 우리 주 예수
 32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과 권세를 돌녀 보낼지니 만고전부터
 33 이제와 세계에 니를지어다 아멘

28 엇던자는 구원하야 불에서 신을어 내고 또 엇던자는 무셔 위함으로
 29 긍휼히 녀이고 옷이라도 육례로 더러워진 거슬 뒤워하라 21 능히 너희를
 30 보호하샤 거리샘이 업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너희를 흠이 업시 그 영광
 31 압헤 세우실자 22 곳우리 구주 홀노 향나이신 하느님께 우리 주 예수
 32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과 권세를 돌녀 보낼지니 만고전부터
 33 이제와 세계에 니를지어다 아멘

묵시

신학수 요한이
받은 거시라

철립철십륙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이는 하는님이 그의게 주신 거신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여러 종의게 고함이니 예수가 그 스자로 말미암아 그
 종 요한의게 보내여 알게 하신 거시라 요한이 하는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 여러 가지 본거슬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너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가 온디 기록한 거슬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잇스리니 예가 갖가음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잇는 니골 고회에 글을 붓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압해 니골 신과 또 신실한 증거가 되샤
 죽은 자가 온디셔 문져나 시고 세상 님군의 어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게 잇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샤 그
 피로우리를 써서 죄를 없사하시고 우리로 나라를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삼아 그 아바지 하는님을 섬기게 하섯스니 영광과 권능을 돌녀 세계에

나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불지이다 구름을 두고 강림하시리니 각인의 눈이
 반드시 보겟고 더를 써른자도 불타이오써에 잇는 여러 족속이다 인하여
 이곡하리니 진실노 그러하라 아멘 ○ 주 하는님이 글으샤되 나는 곳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자요
 무소불능하신자니라 ○ 나 요한은 너희 형데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못치 참여하는 자라 하는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잇서 주일을 당하여 내가 성신에 감동함을 넘어 드르니
 내 뒤에서 큰 소리가 라발 부는 것 못하여 글으되 너 보는 거슬 책에
 써서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나델비아와
 라오디게아 니골 고회에 붓치라 하시기로 몸을 도리켜 나드려 말하
 소리를 알아 보랴고 하여 도리킨즉 금 초티 니골이 보이는데 초티 사이에
 인자 못흔이가 잇서 밧에 신을 나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그머리와 띠의 희기가 현양될도 못하고 눈도 못흐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밧은 풀무에 단련한 밧난 주셔 못하고 그의 소리는 만흔 물 소리와

六 又흔지라 그 올흔 손에 닐굽 별을 잡았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리흔
 七 검이나 오고 그 일골은 희가 힘 잇게 빗치는 것 又흔지라 내가 불 썬에
 八 그 말 압해 업더져 죽은 것 又흐매 더가 그 올흔 손으로 나를 안찰하야
 九 콜으샤 티 두려워 말나 나는 처음과 나종이니 곳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섯도라
 十 불지어 다 이제 다시 살아 세세에 잇서 스망과 음부의 열쇠를 잡았노니
 十一 그 권교로 네 본 것과 이제 잇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거 손
 十二 내 올흔 손에 닐굽 별의 오묘함과 닐굽 금 초티라 닐굽 별은 닐굽 교회의
 十三 스자요 닐굽 초티는 닐굽 교회니라
 十四 에베소 교회의 스자의 게 이 말을 써서 붓치라 닐으티 올흔 손에 닐굽 별을
 十五 잡고 닐굽 금 초티 스이에 든니 시는 이 가 콜으샤 티 내가 너의 일과 슈교와
 十六 너의 촛는 거슬 알고 또 악흔 사람을 용납 지 아니흔 것과 스스로 스도라
 十七 향되 아난자를 시험하야 그 거짓 된 거슬 내가 나타낸 것과 스네가 참고
 十八 내 일홈을 위하야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흔 거슬 아노라 그러나 너를
 十九 책망할 거시 잇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교로 어티서 썬려진

六 거슬 생각하교 회기하야 처음 일을 행하라 내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七 내가 네게 림하야 네 초티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올흔 거시
 八 잇스니 내가 위하야는 니콜나 무리의 일을 내가 위하야는 도다 성신이
 九 여러 교회의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잇는자는 드를 지어 다 이그는자는 내가
 十 하느님의 락원에 잇는 성명 나무의 과실노 더를 주어 먹게 하리라
 十一 서머나 교회의 스자의 게 이 말을 써서 붓치라 닐으티 죽었다가 다시 살아
 十二 처음과 나종이 되신이 가 콜으샤 티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十三 네가 부요하니라 즈칭 유대인이라 하는자의 웨방하던 말을 아노니 실상은
 十四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밧을 고난을 두려워 말나 불지어 다
 十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온티서 몇사름을 육에 던져 시험을 넘어 심일 동안
 十六 환난을 밧게 하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성명의 면류관을
 十七 네게 주리라 성신이 여러 교회의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잇는자는 드를 지어 다
 十八 이그는자는 들재 스망의 해를 밧지 아니하리라 ○ 버가모 교회의 스자의 게
 十九 이 말을 써서 붓치라 닐으티 좌우에 날선 리흔 검을 잡은이가 콜으샤 티

묵시 이장

철벽철심판

^{十三}네가 어딤 사는 거슬 내가 아노니 곧 사단의 위 잇는 디라 내가 내 일홈을
^{十四}곳에 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 때에 내 도리를 비만치 아니 하였도다
^{十五}더가 너희 가온디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나
^{十六}오히려 내가 잇는지라 그가 일즉이 발나을 무르쳐 이스라엘 조손 압헤
^{十七}직히는 자가 잇는지라 그가 일즉이 발나을 무르쳐 이스라엘 조손 압헤
^{十八}을모를 노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형음에게 하였느니라 이와 못
^{十九}나 골나 무리의 교훈을 직히는 자가 그 처럼 내게도 잇느니라 그런고로
^{二十}회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림야 내 입의 검으로 그
^{二十一}사람과 싸호리라 성신이 여러 교회의게 하시느 말씀을 귀 잇는자는
^{二十二}드를 지어다 이그는자의게는 내가 감초앗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二十三}줄러인디 그 돌우에 새 일홈을 쓴 거시 잇느니 오직 밝는자 밝게는 알
^{二十四}사람이 업느니라 ○ 두아디라 교회의 스자의게 이 말을 써서 못치라 날은디
^{二十五}그 눈이 불꽃 되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혼합하는 님의 아들이 골은 사디
^{二十六}내가 너의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종일이 처음

^{二十七}할 것 보다 만도다 그러나 오히려 내게 희망일이 잇노라 내가 그 녀인
^{二十八}이 세벨을 용납하였느니 더가 자칭 선지자라 하고 내 종들을 무르쳐 색여
^{二十九}형음에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느니라 또 내가 색를 주어 회기하게
^{三十}호되 더가 그 음형을 회기코져 아니 하도다 불지어다 내가 더를 침상에
^{三十一}던질러이오 또 더로 더브러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 일을 회기치 아니 하면
^{三十二}큰 환난 가온디 던지고 또 내가 스망으로 그 조너를 죽이리니 여러 교회가
^{三十三}내가 사람의 믿음과 속뜻을 슬피는 자인 줄 알지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三十四}행할 일대로 갇히리라 그 늑하는 두아디라 에잇서 그 교훈을 밋지 아니 하고
^{三十五}더희의 날은바 사단의 갑흔 거슬 아지 못하는 너희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三十六}저울 거시 업노라 다만 내게 잇는 거슬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三十七}이그는자와 나 종까지 내 일을 직히는자의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三十八}주리니 더가 열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질그릇 쉰드리는 것과 못
^{三十九}갈리나 나도 아바지 색 밝은 거시 그리하지라 내가 또 색벽 벽을 주리로다
^{四十}성신이 여러 교회의게 하시느 말씀을 귀 잇는자는 드를 지어다

一 사대 교회의 스자의게 이 말을 써서 붓치라 빌으되 하느님의 빌곱 신평
 二 빌곱 별을 가진이가 글으샤되 내가 너의 일을 아노니 네게 살았다 하느
 三 일흠이 잇스나 실상은 죽었도다 너는 빌쳐여 그 늑은바 죽게 된 거슬
 四 곳게 하라 내가 보거니와 네 일이 내 하느님 압해 온전하지 못하였스니
 五 그런코로 내가 엇더케 밧앗으며 엇더케 드릿는지 괴역하고 직히여 회기하라
 六 만일 빌쳐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 못치느니라 어는 시에 네게 림홀년지
 七 네가 아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오히려 몇명이 잇서 그 옷을 더럽게
 八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합당하냐니 흰 옷을 닦고 나와 흠씩 든나리라
 九 이괴는자는 이와 못치 흰 옷을 닦을 거시오 내가 그 일흠을 성명척에서
 一〇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일흠을 내 아바지 압과 그 스자들 압해 안다
 一一 빌나델비아 교회의 스자의게 이 말을 써서 붓치라 빌으되 거룩하고
 一二 진실하샤 다윗의 열쇠를 가지코 열면 닳을 사람이 업고 닳으면 열 사람이
 一三 업논이가 글으샤되 내가 네 형위를 아노니 네가 여간한 힘을 가지코 내

一 말씀을 직히며 내 일흠을 비반치 아니하였도다 불지어다 네 압해 열년
 二 문을 세우매 능히 닳을 사람이 업스리라 불지어다 사단의 회가 온디셔
 三 지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그러치 아니하고 거짓말하는자를 네게 주어
 四 너희로 하여곰와셔 네 말 압해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五 하리라 내가 나의 춤는도를 직혔스즉 내가 너를 직히여 시험을 당할 때를
 六 면하게 하리니 이때가 장축 원 세상에 림하야 싸에 거하는 사들을
 七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림하리니 내게 잇는 거슬 곳게 잡아 아모나 네
 八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괴는자는 내 하느님 성명에서 기동이
 九 되게 하리니 내가 반드시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느님의 일흠과
 一〇 하느님의 성 일흠을 그 우에 쓰리니 이성은 내 하느님씩로 보러 하늘에서
 一一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 내 새 일흠도 그 우에 쓰리라 성신이 여러
 一二 교회의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잇는자는 드를 지어다 ○ 라오디게아 교회의
 一三 스자의게 이 말을 써서 붓치라 빌으되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거시오
 一四 하느님의 창조 의 근본이 되신이 가 글으샤되 내가 네 형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도 내가 후 차던지 후 더웁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야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찬양야 내 처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곧고 할 것과 가련한 것과 간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별거버는 것을 아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 불노련단 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흰 옷을 사서 너를 벗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는 몇 처던지
 청망하야 징계하는지 그런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불지어다 내가 문압해
 서서 두드리노니 만일 누구던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게로
 드러가 도로 더브러 먹고 더는 나로 더브러 먹으리라 이의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흠씩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 글을 엮어 아바지 보좌에 흠씩 앉은
 것파 나 처하리라 성신이 여러 교회의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드림지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년 문이 있는 지라 내가 드림바 첫 음성
 이 라발 소리 나하야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 오라 내가 이후에 맛당히 될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三

일노써 내게 보이라 하기로 내가 성신의 감동 중심을 넘어 보니 하늘에
 보좌를 베프러 놓은 보좌 우에 앉으신이가 있는 지라 앉으신이의 모양이
 금강석과 홍보석 같고 보좌에 록보석 같은 무지기가 들렸는지 보좌에
 들녀 이십소 보좌가 있스니 그 우에 이십소 장로가 안져 몸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는지라 보좌로 브러 번기와 음성과 퇴성이
 나고 보좌압해 날곰 등불 켜지시 있스니 이는 곳하는님의 날곰 신이라
 보좌압해 슈정파 나하야 류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스면으로
 네령물이 있는데 압뒤에 눈이 나하야 지라 그 첫령물은 스즈 나고 그
 들령물은 송아지 나고 그 셋령물은 얼골이 사름 나고 그 넷령물은
 날나가는 독슈리 나하야 네령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밖게
 두루 눈이 나하야 지라 밤낮 쉬지 안코 말하야 글이 나하야
 기록하다 기록하다 기록하다 전능하신 주하는님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령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함을 보좌에 안드샤 세계에 계시는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들닐 때에 이십스 장로가 보좌에 안스신이 압헤업드려 세계에 계시신 이를
 경복교 또 그 면류관을 버셔 보좌 압헤 던지며 글으디
 우리 주하는 남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는 거시 합당하오니
 주석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잇고 또 지으심을
 받았는이다

하더라
 내가 보매 보좌에 안스신의 오른손에 칙이 잇스니 안받기로 썼는디 닐곱
 인으로 봉하였는지라 또 보매 힘잇는던스가 큰 음성으로 불너 글으디
 누가 칙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우에와 싸우에와 밋
 싸아래 능히 칙을 펴거나 보거나 할이가 업는지라 이 칙을 펴거나 보거나
 능기에 합당하자가 업기로 내가 크게 우니 장로 중에 하나이 내게
 말하야 글으디 우지말나 유대 지파의 스즈 다윗의 씨리가 밧셔 이겼스니
 능히 이 칙과 그 닐곱 인을 떼시리라 하거늘 내가 보니 보좌와 밋네
 령물과 또 여러 장로 가온디 어린양이 셋는디 일즉 죽임을 당한 것

도

十三

又 혼지라 닐곱 별과 닐곱 눈이 잇스매 이는 곳하는 닐의 닐곱 신이니 왼
 세상에 보냄을 넘은자라 어린양이 나와서 보좌에 안스신의 오른
 손에 잇는 칙을 받으시라 칙을 받으시매 네 령물과 이십스 장로가 다
 어린양 압헤 업드려 각각 거문교와 금 대엿을 가졌는디 거의 향을
 그득히 달았스니 이 향은 곳성도의 기도라 새 노래를 노래하야 글으디
 칙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즉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지방과 백성과 나라 가온디 사름들을 피로 사셔 하느님께
 드리시고 또 너희로 우리 하느님 압헤셔 나라를 세우고 제스장을
 삼으셨스니 너희가 싸에셔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드르매 보좌와 령물과 장로 것헤 두루 여러 령스의
 음성이 잇스니 그 수가 만만이오 천천이라 큰 음성을 내여 글으디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요한 것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드르니 하늘 우에와 싸우에와 싸아래와 바다 우에와

묵시 오장

칠십팔십륙

또 그 모든 가온디 만물이 곱으디
보좌에 안조신의와 어린양의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에
들닐지어다

홍니 네 령들이 곱으디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비하더라
내가 보매 어린양의 날콤인 중에 하나를 세시는지라 그 때에 내가 드르니
네 령들 중에 하나 이 우뢰 소리 및 처 말하야 곱으디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물이 있는지라 든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밧아나가셔 이기고
또 이그리라 ○ 들재 인을 세실 때에 내가 드르니 들재 령들이 곱으디
오라 하는지라 또 다른 말이 나오니 붉은 물이라 그 든자의게 권세를
주어 싸에 화평할 거슬 빼아셔 사를 들노서로 죽이게 하고 더의게 큰 칼을
주엇더라 ○ 셋재 인을 세실 때에 내가 드르니 셋재 령들이 곱으디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물이 있는지라 든자가 손에 저울을 잡앗더라 내가
드르니 네 령물 가온디 음성 및 혼 거시 잇서 곱으디 혼량에 밀 혼되를
엇고 혼량에 보리 석되를 엇으리니 기름과 포도즙은 닷치지 말나 하더라 ○

六

넷재 인을 세실 때에 내가 드르니 넷재 령들이 소리하야 곱으디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물이 있는디 그 든자의 일음은 스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쓰르느니라 또 쓰분의 일을 다스리는 현세를 더히게 주어
검과 흉년과 스망과 싸에 잇는 짐승으로써 죽이게 하더라 ○ 다섯재 인을
세실 때에 내가 보니 제단 아래 하는님의 말씀과 더히가 진중거를 위하야
죽임을 밧은 령호들이 잇서 큰 소리로 불너 곱으디 거룩하고 충되신
대주지여 싸에 사는 사를을 심판하야 우리 피를 선혈하야 주지아니 놓지기를
어는 때까지 니르서려 하는 잇가 홍니 각각 더히게 흰 두루막이를 주며
하는 말씀이 아직 잠시 동안 쉬여 더히동모와 형제들도 더히 처럼 죽임을
밧아 그 수가 츠기를 기드리라 하시더라 ○ 내가 보니 여섯재 인을 세실
때에 큰 디진이 나며 히가 총담 및 처 검어지고 원들이 피 및 처 되며 하늘
별이 싸에 썩러지는 거시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녀 선과실이
썩러지는 것과 및 흐며 조희 축이 말니는 것 및 처 하늘이 음겨가고 모든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음기매 또 싸에 님군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十五 十四 十三 十二 十一 十 九 八 七

부자들^七과 권세 잡은 자들과 모든 종과 조주자들이 굴과 산 바회 틈에 숨어
 산과 바회를 불너^七 글으^七 디 우리 우에^七 썩러져^七 리워 보좌에 안조신의
 낮과 어린양의 진노하신 거슬 피하게 하라^七 너희 진노하신 큰 날이 임의
 니르매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후에 내가 보매 네 댤스가 싸네 모퉁이에 서서 싸의 스방 바람을
 붓잡아 바람으로 하여곰 싸와 바다와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七 또 보매
 다른 댤스가 허똥논 디로 브터 올라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싸와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엮은 네 댤스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불너
 글으^七 디 싸이나 바다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하는님의 종의
 니마에 인 치기를 기드리라 하더라 내가 인 마즌자의 수를 드르니
 이스라엘 조손의 모든 지파 중에 인 마즌 수가 십스만 스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 마즌자가 일만 이천이오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납달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잇사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오 벤야민 지파 중에 인 마즌자가 일만 이천이라^九 이 일 후에 내가
 보매 큰 무리가 잇는 디 아모나 능히 해수가 업스니 이는 각 나라와 모든
 족속과 빌성과 디방에서 온 자라 보좌 압과 어린양 압해서서 몸에 흰옷을
 낚고 손에 종려 가지를 잡고 큰 소리로 불너 글으^八 디

구원하심이어 보좌에 안조신 우리 하는님과 어린 양이시로다
 하니 모든 댤스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령을 들너 섰다가 보좌 압해
 업드려 일곱을 대고 하는님께 경배하여 글으^七 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을 다 우리
 하는님께 세세에 돌릴지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 이 응답하여 내게 닐^七 디 이 흰 옷 님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노뇨 하기로 내가 글으^七 디 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나이다 하니 그가 나드려 닐^七 디 이는 큰 환난 가운데서 온 자인 디

八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써서 희게 하였는지라 ^{十五}그런고로 그들이 하는님의
 보좌에 앉게 있고 또 ^{十六}그성전에서 밤낮 섬기며 보좌에 안즈신이 가장막으로
 그우를 덮흐리니 ^{十七}더희들이 다 서주리지도 아니하며 목 모르지도 아니하고
 히나야 모뜨거온 과운이 상하지 못할지라 ^{十八}이는 보좌 가온뒤 계신 어린
 양이 더희의 목자가 되샤 생명 슈심으로 인도하시고 하는 님께서 눈물을
 그 눈에 서다 써서 주심이라
 날곱재인을 제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즈고요 하더니 내가 보매 하는 님
 압헤 서위호던스 날곱이 잇는디 더희게 날곱 라발을 주시더라 ^{十九}또 다른
 던스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곁헤 서서 향을 만히 밧아 가지고
 모든 성도의 괴도와 화합하야 보좌 압 금단에 노흐니 향연이 성도의
 괴도와 흠뻑 던스의 손으로 부르 하느님 압호로 올라가느니라 ^{二十}던스가
 향로를 가지고 단우에 잇는 불을 그득히 담아 싸에 싣으매 되성곽 음성과
 번기 와 다진이 나더라 ^{二十一}날곱 라발 가진 날곱 던스가 불기를 예비하다 ^{二十二}
 첫째 던스가 라발을 부니 피석긴 우락과 불이 나서 싸에 싣아 지매 싸

九

삼분의 일이 ^一드셔 사위고 슈목도 삼분의 일이 ^二드셔 사위고 모든 푸른 풀도
 드셔 사위더라 ^三○ 들재 던스가 라발을 부니 불붓는 큰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 ^四또 흐리라 바다 삼분의 일이 피가 되매 바다가 온디 생명 가진 조물들이
 삼분의 일이 죽고 비가 삼분의 일이 썩여 지더라 ^五○ 셋재 던스가 라발을
 부니 큰 별이 해를 견 것 ^六또 하야 하늘에서 썩러져 강 삼분의 일과 여러
 물 심에 덮히니 ^七이 별 일흠은 썩이라 물 삼분의 일이 썩이 되매 여러
 사람이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죽더라 ^八○ 넷재 던스가 라발을 부니 히
 삼분의 일과 들 삼분의 일과 별 삼분의 일이 침을 밧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어 지니 ^九낮 삼분의 일은 빛침이 업고 밤도 또 그와 같더라 ^十○ 내가 또
 보고 드르니 ^{十一}공중에 날아가는 독슈리가 크게 소리하야 ^{十二}골이 화가
 잇슬지 어다 화가 잇슬지 어다 화가 잇슬지 어다 싸에 거하는 자여 세 던스의
 불라발 소리가 아직 남앗도다 ^{十三}하더라
 다섯재 던스가 라발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싸에 썩러진 별 하나 이
 잇는디 ^{十四}무더향 열죄를 더의게 준지라 ^{十五}더가 무더향 구명을 여니 그

묵시 구장

철벽구십삼

구명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시 큰 풀무의 연기 ^三 又 공야 희와 공기가 구
 구명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어지며 ^三 又 황충이 연기가 온뒤로 브터 싸에
 나 오매 권세를 더하게 주되 싸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준 것 ^四 又 혼지라
 더하게 날은 말씀이 싸에 있는 푸른 풀이나 푸른 초소나 슈목이나 다
 상하지 말고 오직 니마에 하는 님의 인 맛지 아니할 사람만 상하라 ^五 又
 더하게 권세를 주어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다스들 동안 괴롭게 만하게
 하는디 그 괴로움은 전갈이 사람을 쓸 때에 괴로움 ^六 又 대개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 도엇지 못하고 죽고 십호나 죽는 거시 피항리로다
 황충의 모양은 전장에 예비할 못 ^七 又 그 머리에 금 ^八 又 혼면류관을 쓴 것
 又 그 얼골은 사람의 얼골 ^九 又 그 머리털이 있는디 녀인의 머리털 ^十 又 그
 그 어금니는 스즈의 어금니 ^{十一} 又 그 호심경이 있는디 털노 문든 호심경
 又 그 그늘의 소리는 병거와 만흔 물들이 전장으로 달녀 드러가는 소리
 又 그 또 쉼리가 있는디 전갈과 ^{十二} 又 그 쓰는 살도 있는디 그 쉼리에 다스들
 동안 사람 상하는 권세가 있는지라 ^{十三} 又 더하게 님군이 잇스디 무더항의 스자니

히브리 ^{十四} 又 일흠은 아바돈이 오헬나 음으로 일흠은 아불누온이라 ^{十五} 又
 불지어다 ^{十六} 又 첫째 화는 지나갓스나 오히려 이후에 화들이 니르리로다
 여섯째 ^{十七} 又 락스가 라발을 불매 내가 드르니 하는 님 압 금단 썰에서 음성이
 나서 ^{十八} 又 라발 가진 여섯째 락스의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흔 네
 락스를 노하주라 하니 ^{十九} 又 네 락스가 노한지라 그 락스는 그 년 월 일 시에
 니르러 ^{二十} 又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할 거시더라 ^{二十一} 又 마병디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이 수를 드렸노라 ^{二十二} 又 이 상할 가온디 그 불과 든자를 보니
 호심경이 있는디 불 빛과 조쥬 빛과 유황 빛 ^{二十三} 又 그 또 물 머리는 스즈
 머리 ^{二十四} 又 그 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류황이 나는지라 이 세 지앙으로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받았으니 이는 더희 입에서 나는 불과 연기와 류황을
 인흠이라 ^{二十五} 又 이 물들의 힘은 그 입과 그 쉼리에 잇스니 그 쉼리는 비압
 又 그 또 쉼리에 머리가 잇서 이 거스로 해하더라 ^{二十六} 又 이 지앙에 죽지안코
 남은 사람은 그 손으로 ^{二十七} 又 행하는 일을 회기치 아니하고 여러 마귀와
 밋 금은동과 목석으로 문드러 능히 보지도 못하고 ^{二十八} 又 듯지도 못하고

목시 구장

철벽구심소

+

三 든니지도 못하느니 우상의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기치 아니하라
 내가 보니 또 크게 힘잇는 다른 텨스가 하늘에서 내려와 구름을 밟았는디
 그 머리에 무지기가 잇고 그 일곱은 히긋고 그 발은 불기둥긋하더라
 그 손에 적은 책 퍼노흔 거시 잇고 그 올흔 말은 바다를 밟고 왼말은 싸를
 밟고 스즈의 부르지는 것긋치 큰 소리로 부르니라 부를 때에 날곱
 우뢰가 그 소리로 싸 말하느니 또다 날곱 우뢰가 말할 때에 내가 괴롭하더라
 하다가 곳드르매 하늘에서 소리 나며 말하기를 날곱 우뢰가 말하느니
 괴롭하디 말고 인봉하야 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를 밟고 싸를 밟고
 섰는 텨스가 올흔 손을 드러 하늘을 향하야 세계에 살아계신 자 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잇는 물건이며 싸와 그 가운데 잇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잇는 물건을 지으신이름 그르쳐 밍제하야 그르치 님은 때가 업스리라
 하니 날곱재 텨스가 소리 내는 날 그 말을 불게 될 때에 하느님의
 오묘함이 반드시 일우리니 이는 그 종 여러 선지자의게 보이신 복음과

+

八 곳흐리라 전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니던 소리가 또 내게 말하야 글으디
 바다를 밟고 싸를 밟고 섰는 텨스의 손에 퍼노흔 책을 가져가지라 하기로
 내가 곳 텨스의게 나아가 적은 책을 달나흐주 텨스가 글으디 갖다 먹으라
 네 입에는 살긋치 드나네 비에는 쓰리라 하거늘 내가 텨스의 손에서
 적은 책을 갖다 먹으니 입에는 살긋치 드나 먹은 후에 비에서는 쓰더라
 너희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 비성과 나라와 족속과 님군의 일을
 다 시예언하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짐행이긋흔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내려나서 하느님의 성년과
 제단과 그 가운데 경비하는 자를 책량하되 성년 밧마당은 책량하지 말고
 그 냥 두라 이 거슬 말서 이방 사람의게 주었스죽 너희가 기록을 성을 마흔
 두들 동안 편답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거하는 자의게 권세를 주리니
 너희가 일천 이백륙십일을 뵈옵니고 예언하리라 이는 이 세상의 주압해
 섰는 두 감람 나무요 두 초디니 만일 누구던지 너희를 해하고 저를 죽이
 디면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슈를 쇼멸할지니 누구던지 해하려 하는 자는 이와

묵시 십일장

칠십구십칠

^六 못치 죽여야 할리라 ^六 너희가 권세가 있어서 능히 하늘을 닦아 그 예언을
^七 하는 날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가 있어서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八 또 아모 때던지 너희 모음대로 여러 가지 지양으로 싸를 치리도다 너희가
^九 그 증거를 못칠 때에 무더함으로 버터 올라오는 짐승이 너희로 더브러
^十 싸흠을 나르켜 너희를 이기고 너희를 죽일러 인즉 너희 시레가 큰 성
^{十一} 거리에 잇스리니 그 성은 신령한 말노 흥면 서돔과 애굽이라 곳 너희
^{十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러 빌성과 족속과 디방과 나라
^{十三} 중에서 사를들이 그 시레를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무덤에 장스지 못하게
^{十四} 할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세상에 거하는 사를을 괴롭게 하고로 세상에
^{十五} 거하는 자가 그 거슬 본즉 즐겁고 깃버하여 서로 레물을 보내리라 삼일 반
^{十六} 후에 하늘로 보러 성의가 너희 속에 드러가매 너희가 발노 곳나러서니
^{十七} 그 구경하는 사를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너희가 드러매 하늘노 보러 큰
^{十八} 소리가 잇서 곧 이리로 올라오니 너희가 곳구름을 두르고 하늘노
^{十九} 올라가는 거슬 너희 원수도 구경하는지라 그 사에 큰 디진이 나서 성

^{二十} 십분의 일이 문히지며 디진에 죽은 사를이 칠천명이오 그 남은 자들이 다
^{二十一} 두려워 영화를 하늘에 계신 하늘의 돌너더라 ○ 볼지어다 돌재 화는
^{二十二} 지나가고 셋재 화가 속히 나르느도다 ○ 빌골재 던스가 라 말을 볼때
^{二十三}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잇서 곧 이리로
^{二十四} 오시리로다
^{二十五} 하니 하늘의 압해 제 자리에 안즌 이십스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二十六} 하는 님씨 경비하여 이르되
^{二十七} 감샤함을 하니 넷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전능하신 주하는 님이여
^{二十八}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二十九} 진노함심이 세상에 림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요 종선지자들과
^{三十} 여러 성도와 또 무론대쇼하고 주의 일흠을 공경하는 자의 계상 주실
^{三十一} 때요 또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 식히실 때로 소이다
^{三十二} 하더라 ○ 이에 하늘에 잇는 하늘의 성년이 열나는지라 성년 안에

士

하느님의 언약 계가 보이며 또 번기와 음성과 회성과 디진과 큰 우박이
잇더라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혼녀인이 잇서 히를 옷 닦고 고들이 그 발
아래 잇고 그 머리에 열두 별 노문든 면류관을 썼더라 이녀인이 은혜를
비여 허산할 때 가 되매 압하서 이씨 부르지질 때에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혼녀인은 붉은 룡이 잇서 머리가 닢곱이 오설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닢곱 면류관을 썼는지 그 쉼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쓸어다가 싸에 던지더라 룡이 허산할녀인 압하서 허산하기를 기도려 그
은혜를 삼기고져하더니 녀인이 은혜를 나흐매 곳남즈라 장춧 털장으로
만국을 다스릴자니 그 은혜를 하느님 압과 그 보좌 압호로 올녀가더라
그녀인이 도망하야 광야로 가매 하느님이 더를 위하야 예비하신 곳이
거기 잇스니 일천이 백륙십일 동안 거기서 양육을 받으니라 ○ 하늘에서
싸흠이 잇스니 미가엘이 즈기의 스자를 거느리고 룡으로 더브러 싸흠서
룡도 즈기의 스자를 거느리고 싸화이 괴지못하야 다시 하늘에서 더희가

八
七
六
五
四
三
二

잇슬 곳을 엿지못할지라 큰 룡이 내여 쫓기니 넷 비암이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니 원뎨하를 썩이느니라 싸으로 내여 쫓기매 그
스자도 썩호내여 쫓기니라 내가 드르니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잇서 글은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일우엇도다 대개 우리 형대를 참소하던자가 쫓겨났스니 곳 우리
하느님 압하서 밤낮 참소하던자라 여러 형데가 어린양의 피와
즈기의 증거하는 도를 힘납어 이괴엿스니 죽기까지 생명을 앗기지아니
하엿도다 그런고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싸와 바다는 화 잇슬진대 대개 마귀가 즈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아는고로 크게 분내여 너희게 느려갓다
하더라 ○ 룡이 즈기가 싸으로 내여 쫓긴 거슬 보고 남즈를 나흔 녀인을
필박하느니라 그 녀인의게 큰 독슈리의 두 늘기를 주어 광야에 잇는
그 곳으로 날나가 비암의 낮출 피하야 거기서 흠새와 두새와 반새를
양육 받게 하매 비암이 녀인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토하기를 강구치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三

一 ㅎ야 녀안을 침몰케 하려하되 ^ㅅ싸이 녀안을 도야 그 입을 버려 룡의 입에서
 二 ㄷ호 감물을 삼키니 룡이 ^ㅅ녀안을 분노하야 도라가서 그의 늪은 즈손으로
 三 ㄷ브러 싸호니 이는 하느님의 계명을 직히며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라
 四 ㄷ가 바다 모래에 섰더라 ○ 내가 보니 바다에서 호 증성이 나오느되 썰이
 五 열이 오머리가 날굽이라 그 썰에 면류관 열을 쓰고 그 여러 머리에 촛람
 六 된 일흠을 썼는지라 내가 본 증성이 형상은 표범 ^ㅅ고 그 발은 곰의 발
 七 ㄷ고 그 입은 스즈의 입 ^ㅅ호흔디 룡이 그 능력과 그 위와 큰 권세를 그의 계
 八 주더라 내가 보매 ^ㅅ의 머리 ^ㅅ나 이 상하야 죽게 된 것 ^ㅅ더니 그 죽게
 九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원 계상이 이상히 녀여 증성을 쓰르느니라 룡이
 十 증성의 권세를 줌으로 ^ㅅ회가 룡의 계 경비 ^ㅅ고 또 증성의 계 경비 ^ㅅ야
 十一 ㄷ이 ^ㅅ디 누가 그 증성의 계 비하며 누가 능히 ^ㅅ브러 싸호겠느냐 ^ㅅ더라
 十二 ㄷ도 크게 자랑하며 ^ㅅ방 ^ㅅ는 입을 증성의 계 주고 또 권세를 주어 마흔
 十三 ㄷ들을 일하게 ^ㅅ는지라 증성이 입을 버려 하느님을 향하야 ^ㅅ방 ^ㅅ디 그
 十四 일흠과 그 장막과 밋하늘에 거하는 자를 ^ㅅ방 ^ㅅ더라 권세를 주어 ^ㅅ도와

一 ㅅ화 이고 ^ㅅ고 또 여러 족속과 ^ㅅ성과 ^ㅅ방과 ^ㅅ나라를 다스리게 ^ㅅ니
 二 ㄷ세 ^ㅅ으로 ^ㅅ터 죽임을 당하느라 ^ㅅ양 의 성명 ^ㅅ에 ^ㅅ명 ^ㅅ바 ^ㅅ되지 못 ^ㅅ고
 三 이 ^ㅅ상에 사는 자들은 다 증성의 계 경비 ^ㅅ리라 누구던지 ^ㅅ가 잇거든
 四 ㄷ를 지어 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거시오 ^ㅅ노 죽이는 자는 맛당히 ^ㅅ에
 五 죽으리니 ^ㅅ도의 인내와 밋는 거시 ^ㅅ의 보이느니라 ○ 내가 보매 ^ㅅ 다른
 六 증성이 ^ㅅ에서 올라오니 ^ㅅ의 삭기 ^ㅅ치 두 썰이 잇고 ^ㅅ과 ^ㅅ치 ^ㅅ는 지라
 七 이 증성이 ^ㅅ쳐 나온 증성의 권세를 그 ^ㅅ쳐 다 쓰고 또 이 ^ㅅ상과 이
 八 ^ㅅ상에 사는 사름들 노전 증성의 계 경비 ^ㅅ고 ^ㅅ니 ^ㅅ죽게 되었던 ^ㅅ쳐가
 九 나온 ^ㅅ라 ^ㅅ이 ^ㅅ을 ^ㅅ하디 ^ㅅ지어 사름 ^ㅅ쳐서 ^ㅅ이 ^ㅅ는 노 ^ㅅ터 ^ㅅ에
 十 ㄷ러 오게 ^ㅅ고 증성 ^ㅅ쳐서 ^ㅅ는 바 ^ㅅ쳐서 ^ㅅ는 노 ^ㅅ터 ^ㅅ에
 十一 ㅎ하게 ^ㅅ며 ^ㅅ에 거하는 사름을 ^ㅅ하야 ^ㅅ에 ^ㅅ였다가 ^ㅅ아난 증성을
 十二 ㄷ려려하야 ^ㅅ을 ^ㅅ나 ^ㅅ라 ^ㅅ가 ^ㅅ세를 ^ㅅ아 증성의 ^ㅅ의 ^ㅅ
 十三 ㅎ기를 주어 그 ^ㅅ으로 ^ㅅ게 ^ㅅ고 또 증성의 ^ㅅ의 ^ㅅ의 ^ㅅ지 아니
 十四 ㅎ는 자는 ^ㅅ던지 다 죽이게 ^ㅅ더라 ^ㅅ가 ^ㅅ 무리들 노 ^ㅅ는 자나 ^ㅅ자나

古

十七 혹부자나 빈궁한자나 혹 즈쥬한자나 종이나 다 을혼 손에나 니마에나
 표를 받게 하고 사름이 만일이 표가 업스즉 매미들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十八 곳 즈성기의 일흠이나 그 일흠의 수라 지혜가 여의 잇스니 총명 잇는자는
 그 즈성기의 수를 헤여보라 그 수는 사름의 수니 룩릭 룩십 룩이나라
 내가 또 보매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는디 곳 처 잇는자가 십사만 스천이나
 그의 일흠과 그 아바지의 일흠을 그 니마에 쓴 거시 잇더라 내가 드르매
 三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 여러 물 소리도 곳고 큰 퇴성도 곳흔디 내게 들니는
 소리 는 거문교 두는자들이 그 거문교를 두는 것 곳더라 너희 무리가
 보좌와 네 령물과 장로 압헤서 노래를 하니 새 노래 곳흔디 이 노래는
 四 새에서 구속함을 엮은 십사만 스천인 밝게는 능히 비출자가 업스니 너희는
 계집으로 더 브러 더러이지 아니 하고 정절이 잇는 자라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던지 새라 가는지라 너희가 사름가 온디서 구속함을 엮어 처음 너은
 열미가 되여 하는 님과 어린양의게 드린바 되니 그 입에 거짓 말이 업고
 五 흠이 업는 자더라 ○ 또 보매 다른 런스가 공중에 놀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七 새에 사는 사름들의게 전하고져 하니 곳 여러 나라와 족속과 디방과
 八 밋성이라 그 런스가 크게 소리가야 글으디 하는 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닐지이다 대개 심판할 실때가 니르릿스니 하늘과 새와 바다와 밋여러
 九 물 심을 몬드신을 경비하라 하더라 ○ 또 다른 런스 곳 들재 런스가 그
 뒤를 새라 말하디 문히졌도다 문히졌도다 큰 성 바벨논이여 여러 나라를
 그 음행으로 하야 진노하시는 술노 먹엿도다 하더라 ○ 또 다른 런스 곳
 十 셋재 런스가 그 뒤를 새라 크게 소리가야 글으디 만일 누가 즈성과 그
 十一 우상의게 경비하던지 또 니마에나 손에나 표 받은자는 하는 님의 진노하시는
 술을 마시리니 진노하시는 잔에 석간 거시 업서 부은 술이라 여러 기록을
 十二 런스와 어린양 압헤서 불과 류황의 고난을 밋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十三 세계로 록을 나가 리로다 즈성과 그 우상의게 경비하고 그 일흠의 표 밋은자는
 十四 누구던지 밤낮 평안함을 엮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의 보이니
 十五 너희는 하는 님의 계명과 예수의 도리를 직히는 자니라 ○ 내가 드르매 하늘에서
 十六 소리가 나서 글으디 기록하라 즈금이 후로 쥬를 놀히다가 죽은자가 복이

잇스리라 성신이 글으샤 디 그러하다 더히 슈교를 곳치매 그 형호 일이 또 호
 사들은 니라 하시더라 ○ 내가 보매 흰 구름이 잇는디 구름에 안존 이가 인자와
 방불호니라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 리호 낫을 잡앗는디 또 다른
 띠스가 성연으로 브러나와 구름우에 안존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불너 글으디
 네 낫을 가지고 거두라 거둘새가 니르려 싸에 곡식이 물낫도다 하시니 구름
 우에 안존이 가 곳낫을 싸에 두루매 곡식이 거두이니라 ○ 또 다른 띠스가
 하늘에 잇는 성연에서 나오는디 또 리호 낫이 그 손에 잇는지라 또 불
 초지호 다 른 띠스가 제단으로 브러나와 리호 낫 가진 띠스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불너 글으디 네 리호 낫을 가지고 싸의 포도를 거두어 하느님의 진노하시
 니엇도다 띠스가 낫을 싸에 들너 싸의 포도를 거두어 하느님의 진노하시
 술 짜는 큰 띠스에 던지매 성 빛게셔 그들이 불히이니 띠스에서 피가 나셔
 김기가 물 구레까지 올라오고 길기는 로마 리수로 일천 류빅리더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을 보매 크고 이상호 지라 띠스 고티스가 낫을
 가지고 오니 이는 무즈막 지앙이라 하느님의 진노하심이 곳치는 거시로다 ○

三

三十九 三十七 三十六 三十五 三十四

내가 보매 불이 석긴 류리 바다 곁호 거시 잇고 또 즘성파 그 우상과 그
 일호의 수를 이기고 버셔 난자들이 류리 바다 가에서 서 하느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느님의 종 모세의 시와 어린 양의 사를 노래하야 글으디
 전능하신 주 하느님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괴이하시도다 여러 세디
 님군이여 형하시는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감히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일호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시오 오직 주
 빛게 거룩함이 가 업스니 주의 의로 오신 일이나 나타나신즉 모든 나라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잇서 증거하시는 장막의 성연이
 열리며 띠스 지앙을 가진 띠스 고티스가 성연으로 브러나와 무고 빛난
 보석으로 씌인 옷을 낚고 가슴에 금 씨를 띄고 네 령물 중에 하나 이
 세계에 피신 하느님의 진노하심을 무득히 담은 금 대뎨 띠스 고티스가
 띠스의게 주니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을 인하여 성연에 연리가 크게 되매
 띠스 고티스의 띠스 지앙이 다 하기까지는 성연에 드러갈 자가 업더라

六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三 三진노를 담은 날굽 대답을 싸에 쏟으라 〇 첫재 련스가 가서 하는님의
 二 〇 사람의 몸에 나더라 〇 둘째 련스가 그 대답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一 죽은자의 피 곳치 되니 바다가 된지라 내가 드르니 물을 초지흐련
 四 스가 그로 디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거룩하신이여 〇 셋재 련스가
 三 〇 피를 마시게 하섯스매 너희게 맛당흔 거시라 하더니 내가 드르니
 二 〇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전능하신 주하는님이여 심판을 하시니
 一 〇 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〇 넷재 련스가 그 대답을 히에 쏟으매
 四 〇 권세를 밧아 불노 사람을 티오니 사탄들이 크게 티오는 거세 들을 남은지라
 三 〇 이 여러 지양 초지흐 권세를 가지신 하느님의 일흔을 휘방하며 또
 二 〇 희기하야 영화를 돌리지 아니하더라 〇 다섯재 련스가 그 대답을 즙성의

三 〇 자리에 쏟으니 그 나라이 곳어 두어지며 사탄들이 압하셔 저의 혀를 쳐물고
 二 〇 압흔 것과 종기로 하야 하느님을 휘방하고 형위를 희기치 아니하더라 〇
 一 〇 여섯재 련스가 그 대답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못물나셔
 四 〇 동방에서 오는 여러 날굽을 위하야 길을 예비하게 하더라 내가 보매 샤키
 三 〇 세사 개코리와 죽하야 룡의 입과 짐성의 입과 거죽 선지자의 입으로
 二 〇 나오니 여는 마귀의 신령이니 이적을 행하야 원현하여 여러 날굽의 게 가서
 一 〇 전능하신 하느님 큰 날에 모화 싸호게 하더라 불지어다 내가 도적 곳치
 四 〇 오리니 누구던지 날써여 저의 옷을 직혀 벌거벗고 든디 말고 저의
 三 〇 붓그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자가 복이 잇스리로다 〇 너희가 여러 왕을 흘
 二 〇 못에 모호니 그 곳은 히브리음으로 아갓돈이라 〇 날굽재 련스가 그
 一 〇 대답을 공기가 온디 쏟으매 큰 소리가 성현으로 좃차 보좌로 브터 나서
 四 〇 글이 다 되엿다 하니 번귀와 음성과 되성이 잇고 또 큰 디진이 잇서
 三 〇 엿지 큰 사람이 싸에 잇서 음으로 이 곳치 큰 디진이 엷는지라 큰 성이
 二 〇 세 갈대로 갈나지고 또 이방 여러 성도 다 문혀지니 하느님이 큰 성

三

바벨논을 괴역하샤 조괴의 진노하시느 독주를 잔에 부어 주시매 여려
 삼도 다 업서지고 산악도 간디 업더라 또 큰 우박이 하늘노브러 사름의게
 느리니 우박덩어리마다 중수가 빙근즈 되매 사름들이 그 박저로하야
 하느님을 회방하니 그 죄악이 심히 큼이러라
 그닐곱 대덥을 가진닐곱 련스 중에 하나이 내게 와서 글으되 이리
 오라 여러 물우에 안즌 큰 음녀의 밧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싸에 님군들도
 일죽 더로더브러 음행하고 싸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술노 취하였느니라
 또 내가 성신의 감동음을 넘어 련스의게 들녀 광야에 가서 보매 한계집이
 북은 빛 즘성을 뜻느디 그 즘성은 원 몸에 출람 된 일흠이 잇고 머리
 님곱과 쌀열이 잇스며 그계집은 조슈밧과 북은 밧옷을 님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섬이고 손에 금 잔을 드렸느디 가증흔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거슬
 그득히 담앗고 일흠을 그니마에 써글으되 오묘라 하고 큰 바벨논이라
 하고 음녀와 싸의 가증흔 것의 어미라 하였더라 내가 보매 이계집이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를 마시고 취하였거늘 내가 그계집을 보고

二
 一
 四
 三
 二
 一

七

괴이히녀이고 크게 괴이히녀이니 련스가 글으되 괴이히녀이느나 내가
 계집과 그든바닐곱 머리와 열쌀 가진 즘성의 오묘흔 뜻을 내게 님노노니
 네본 즘성은 전에 잇다가 시방 업스나 장춧 무더항으로브러 올라와
 멸망으로 드러가리니 싸에 거하는자가 곳 창세하야 음으로 그 일흠을
 성명척에 올리지못흔자들이 즘성이 전에 잇섯다가 시방 업스나 장춧나올
 거슬 보면 괴이히녀이라라 지혜 잇는 마음이 씨드를지니 그닐곱 머리는
 님곱 산이라 계집이 안즌 곳이오 또 님곱 왕이라 님스은 임의 망하고
 하나는 시방 잇고 또 하나는 아직 나르지 아니하였스나 나르면 잠간 동안
 잇스리라 전에 잇다가 시방 업서진 즘성은 여덟재 왕이니 더가 님곱 왕
 중에서 나왔다가 반드시 멸망으로 드러가리라 보던 열쌀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엿지 못하였스나 다만 즘성으로 더브러 님군의 권세를 일시
 동안 밧으리라 더하가 일심을 먹고 그 능력과 권세를 즘성의게 주니라
 더하 무리가 어린양으로 더브러 싸호리니 어린양이 이그리라 그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 그와 흠씩 잇는 자들은 부르심을 님고

六
 五
 四
 三
 二
 一

묵시 십칠장

팔십십

十一째 심을 엮고 진실한 자니 이과리로다 十二
 十二음녀의 알손물은 여러 밍성파 무리와 나라와 디방이니라 十三
 十三잠성이 음녀를 휘워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노
 十四아조 살오리라 대개 하는님이 저기 소원대로 할 주의를 더히게 주어
 十五더희로 하여곰 일심을 먹고 더희 나라를 그 잠성의게 주어 하는님 말씀
 十六응하기를 기드리게 하심이라 너 본바 제집은 세상의 여러 님군을 다스리는
 十七큰성이라 하더라

大

一이 일 후에 다른 런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디
 二그 영광으로 세상이 환한지라 장대할 소리로 불너 글으되 문히졌도다
 三문히졌도다 큰성 바벨논이여 사귀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귀신의 육이
 四되고 더럽고 가증한 새의 가천 곳이 되엿도다 그 음녀의 음행으로 하여
 五음행하였스며 세상 상고들도 더의 사치한 권세를 인하여 부요하였도다
 六하더라 ○ 내가 드르매 하늘노셔 또 다른 소리가 잇서 글으되 내 밍성들아

一곳 그 가운데서 나와서 더와 흠씩 죄에 참여하지 말고 더의 밍성을
 二면하라 그 죄악은 하늘에 스뭇차스며 하는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三다가 준대로 되신 주고 그 횡위대로 두 갑절을 갑하 주고 그 부엿던
 四잔에도 갑절이나 더 부어 주라 더가 엿더케 저기를 영화롭게 하였스며
 五엇더케 사치한 거슬 쓰라 고난과 이통으로 갑하 주라 대개 더의 밍음에
 六말하기를 나는 너황으로 안손차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이통은 더
 七니르지아니 하리라 하니 그런고로 호로 스이에 그 저앙이 니르리니 곳
 八스망과 이통과 흥년이 다가가 호호 불에 살오워지리니 더를 심판할 신주
 九하는님은 큰 능력이 잇는 자시니라 더와 흠씩 음행하고 사치하던 세상의
 十왕들이 더의 불꽃은 연과를 보고 위하야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十一무셔워 밀니 서서 글으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크고 견고한 성 바벨논이여
 十二일시간에 네 심판이 니르렀다 하리로다 세상의 상고들이 더를 보고 울고
 十三이 통하는 거슨 다시 그 물건들을 사는 자가 업슴이라 그 물건은 금은과
 十四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조슈 옷 가음과 비단과 붉은 옷 가음과 각종

향목들과 상아 괴명들과 갑진 나무와 동과 철과 옥석으로 모든 괴명들과
 제피와 두구와 향물품과 향기로 온 기름과 유향과 술과 기름과 고흔 밀
 가로와 밀과 짐승과 양과 물과 수레와 종과 사람의 령혼이라 바벨논아
 네 령혼의 람혼던 과실이 네게 썩나며 맛 있는 것과 빗난 것들이 다
 업서졌스니 사람이 반드시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논을 인하여 처부혼
 이 물건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 떨니 서서 울고 이동하여 고통이 화
 잇도다 화 잇도다 큰 성아 본티 세마포와 즈주와 북은 옷을 남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삼인 거신디 그러케 풍성흔 거시 일시간에 다 망하였도다
 여러 선장들과 선인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싱애흔 사람들을 다 떨니
 서서 그 불꽃은 연기를 보고 불너 고통이 이 큰 성을 비교할 성이 어디
 잇는뇨 하며 티살노써 머리에 썩리고 울고 이동하여 불너 고통이 화
 잇도다 화 잇도다 화 잇도다 이 큰 성아 바다에서 티 부리는자들이 너의
 보리로움을 인하여 처부하였더니 이제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거슬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는님이

너희를 위하여 신원하시느 심판을 더의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 이에 혼
 장대흔 연스가 큰 미돌고 혼돌을 드러 바다에 던져 고통이 큰 성 바벨논이
 이 곳치 몹시 썩러져 반드시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거문고 두는자와
 풍류하는자와 풍요 부는자와 라발 부는자들의 소리가 다시 네가 온디셔
 들너지 아니하고 무론 무슴 일을 하는자던지 다시 네가 온디셔 보이지
 아니하고 또 미돌 소리가 다시 네가 온디셔 들너지 아니하고 등불 빛치 다시
 네가 온디셔 빛최이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다시 네가 온디셔
 들너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세상의 왕족이라 네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한바 되었도다 여러 선지자와 성도들과 밋싸에서 죽임을
 당흔 모든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드르매 하늘에서 허다흔 무리의 큰 소리 고통이 거시 잇서 고통이
 할넬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이 우리 하느님께 잇도다 그 심판은
 참되교 의로운 자라 더의 음행으로 싸를 더럽게 혼은 음녀를 심판하샤
 지기 종의 피 흘닌 갑슬 더의 손에서 벗으셨다

三 ㅎ고 두번재 글으 디 할넬루야 ㅎ더니 그 연의가 세세에 올라가느니라
 四 이십사 장로와 네령물이 업드려 보좌에 안스신한 님씩 경비하야 글으 디
 五 아멘 할넬루야 ㅎ니 보좌에서 소리가 나서 글으 디
 六 하느님의 종이 되어 두려워하느 너희들은 무론 대쇼ㅎ고 다 우리
 七 ㅎ더라 내가 드르니 ㅎ다흔 무리의 소리도 ㅎ고 여러 물 소리도 ㅎ고 큰
 八 리성도 ㅎ호야 글으 디
 九 할넬루야 전능하신 주 우리 하느님이 왕이시라 우리가 맛당히
 十 즐거워ㅎ고 크게 깃버하야 영화를 돌니세 어린양의 혼인 괴약이
 十一 니 르릿스매 그 안히가 말셔 예비하엿스니 그 안히가 은혜를 밧아
 十二 썩긋ㅎ고 빛난 세마포를 님엇슨죽 이 세마포는 곳 성도의 올흔
 十三 형실이 로다
 十四 ㅎ더라 ㄹ스가 내게 말ㅎ디 괴룩ㅎ기를 누구던지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十五 청함을 님은쟈들이 복이 잇다 ㅎ라 ㅎ며 또 내게 말ㅎ디 이 거슨 하느님의

十 ㅎ되신 말씀이라 ㅎ기로 내가 그 발 압해 업드려 경비 ㅎ려 ㅎ니 ㄹ가
 十一 나드려 말ㅎ기를 삼가 그리 ㅎ지 말나 내가 너와 밧 예수의 증거를
 十二 밧은 너의 형데와 ㅎ치 종이 되엿스니 오직 하느님씩 경비하라 대궐
 十三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 ㅎ더라 〇 내가 또 보매 ㅎ날이 열녇도다
 十四 불지어 다 빅마가 잇고 또 든쟈가 잇스니 그 일흠은 충신파 진실이라
 十五 ㄹ가 심판하느 것파 싸호느 거슬 공의로 ㅎ더라 그 눈이 불뿔 ㅎ고
 十六 머리애 여려 면류관을 쓰고 또 일흠 쓴 거사 잇스니 ㄹ의 밧게 아느쟈가
 十七 업느니라 ㄹ가 피색 름 옷을 님엇느디 그 부르느 일흠은 하느 님 말씀이라
 十八 ㅎ더라 ㅎ날에 잇는 군타들이 희고 색긋흔 세마포를 님고 빅마를 두고
 十九 ㄹ를 쓰르느니라 리흔 검이 ㄹ의 입에서 나오니 그 거스로 가히 만국을
 二十 치겿고 ㄹ희를 털장으로 다스리며 또 전능하신 하느님의 진노하시는 독쥬
 二十一 짜는들을 밧겿고 그 옷파 그 다리애 일흠 쓴 거사 잇스디 만왕의 왕이 오
 二十二 만쥬의 쥬라 ㅎ엿더라 〇 내가 또 보매 ㅎ턴스가 ㅎ가 온디 서셔 공중에
 二十三 는 못새를 향하야 큰 소리로 불너 글으 디 와셔 하느님의 큰 잔치에 모혀

여러 왕의 고기와 장군의 고기와 장수의 고기와 물과 그든 사람의 고기와
 즈유 혼자나 종이 나 적으나 크나 모든 사람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 내가 또
 보매 그 짐승과 새에 짐승이 잡히고 그 군대들이 모혀 그 물 든 자와 그 군대도
 잡혔스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의 계 경박한 자를 이적으로 미혹하게
 할 자라 이 들을 산채로 류황 불 붙는 구렁텅이에 던지고 그 짐아지는 물
 든 자의 입으로 나오느니 겹에 썰너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먹고 비부르더라
 내가 또 보매 천사가 하늘로 올라 오느니 무더항 열쇠와 큰 쇠사슬이 그
 손에 잇는 지라 이에 룡을 잡으니 곧 넷비암이오 마귀오 사단이라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더항에 던져 잡고 그 우에 인봉하여 천년이 초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불가불 잠간 노하 주리라 ○
 내가 또 보좌를 보니 안존자가 잇는 디 심판하는 권세를 더하게 준 지라
 내가 또 보매 예수의 증거와 하늘의 말씀을 위하여 목버 힘을 받은 자의
 령혼과 짐승과 그 우상의 계 경박한 지도 아니하고 니 마와 손에 그 표를

두

十三 十二 十一 十 九 八 七 六 五

받지도 아니 혼자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 브러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 오 그 능아 지 죽은 자는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천년 초기를
 기드리니 누구던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잇고 거룩한도 다 둘째
 사망이 그 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업고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 브러 왕 노릇 하리라 ○ 천년이 초매 사단이
 그 옥에서 노혀 나와서 새 우에 스방 빙성 곳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화
 싸움을 붙치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갯흔 지라 더희가 디면에 널니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더희를 소멸하고
 더희를 미혹하는 마귀를 류황 불 구렁텅이에 던지니 그 짐승과 거죽
 선지자도 잇는 곳이라 세계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 내가 크고 흰
 보좌와 밋그 안존자를 보니 새와 하늘이 그 압해서 피하여 간 디 업더라
 내가 또 보매 죽은 자가 무론 대쇼하고 보좌 압해 섰는 디 칙들을 퍼 놓코
 또 다른 칙을 퍼 노핫스니 곧 심명 칙이라 여러 죽은 자가 자기 형위를
 좇차 칙들에 적힌 대로 심판을 받았스니 바다가 그 가온 디서 죽은 자를

내여 주고 또 스망과 음부도 그 가온타셔 죽은자를 내여 주매 각 사름이
 조그의 형위대로 심판을 밧고 스망과 음부도 불 구렁렁이에 던짐을
 녀옵으니 이 거슨 들재 스망 곳 불 구렁렁이라 누구던지 성명척에 적히지
 못흔자는 불 구렁렁이에 던졌더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업서 지고 바다도 썩
 다시 잇지안터라 내가 또 보매 거룩흔 성새 예루살렘이 하니 님씨로브터
 하늘노 좃차 내려오니 그 좃춘 거시 맛치 신부가 지아비를 위하야 단장흔
 것보다 내가 드르매 보좌에서 큰 소리 나셔 골의 돌지어 다 하는 남의
 장막이 인간에 잇스매 하는 남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나 너희는 하는 남의
 백성이 되고 하는 남이 천하 너희와 함께 거셔 너희의 하는 남이 되고
 눈물을 그 눈에셔 다 씻거시며 다시 스망이 업고 이등흔 것과 곡흔
 것과 압흔 거시 다시 잇지아나하리니 처음 일이 다 지나 감이러라 보좌에
 안즈신이 가 골의 샹티 불지어 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골의 샹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三 二 一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일우엇도 다 나는 알과와 오매가 요 처음과 나종이라 내가 성명 슈심물노
 목 모른자의 게 갑 업시 주리니 이의 자는 아여러 거슬 유업으로 잇으리라
 나는 더의 하는 남이 되고 더는 내 아들이 되리니 다만 두려워하자는 자와
 밋지아나하자는 자와 흉악한자와 살인한자와 형음흔자와 복술과 우상의게
 절하는자와 모든 거짓 말하는자는 다 류황 불붓는 구렁렁이에 참예하리니
 이는 들재 스망이라 ○ 또 막 니골 자양을 그득히 담은 니골 대담을 가진
 니골 런스 중에 하나 이 내게 나와셔 골의 돌이 오리 오라 내가 신부로써
 네게 보이리니 곳어린양의 안희라 하더라 내가 성신의 같음음을 내어
 띤스의게 들너 크고 높흔 산으로 올라가매 더가 거룩흔 성 예루살렘이
 하는 님으로브터 하늘노 좃차 내려오는 거슬 보이니 하는 님의 영광이
 잇스매 그 성의 빛치 맛치 거룩히 귀흔 보석 고히되 금강석과 슈정 고히
 뭍더라 크고 높흔 성이 잇고 문 열들이 잇는디 문에 열두 런스가 잇고 그
 문우에 일흔을 썼스니 이스라엘 조손 열두 지파의 일흔이라 동편에 세
 문이 오 북편에 세 문이 오 남편에 세 문이 오 서편에 세 문이라 그 성우에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十五}성터 열물이 잇고 터우에 어린양의 십이 스도의 열두 일홈이 잇는지라
^{十四}나드려 말하던 자가 자를 가졌스니 금대라 그 거슬 가지고 성읍과 그 문과
^{十三}성을 책량하려 하니 그 성읍이 네 모가 받듯 야장광이 호흔지라 그 대를
^{十二}가지고 성읍을 책량하니 일만이 천리요 장과 광과 고가 호흔지라 그 성을
^{十一}책량할 때 일백 스십 스책이니 곳 사람의 자인디 턴스의 자라 그 성은
^十금강석으로 짖코 그 성읍은 정금인디 묶은 류리 곳더라 성읍에 성터는
^九각석 보석으로 삼엿는디 첫재 러는 금강석이오 들재는 램보석이오 셋재는
^八창옥이오 네재는 록보석이오 다섯재는 홍마노요 여섯재는 황마노요
^七닐곱재는 황옥이오 여덟재는 옥이오 아홉재는 담황옥이오 열재는
^六비취옥이오 열한재는 적옥이오 열둘재는 조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五진주니 문마다 각각 호진주요 성의 거리는 묶은 류리 호흔 정금이더라
^四내가 성안에 성면을 보지 못하였스니 이는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밋어린
^三양이 그 성면이 되심이라 그 성은 회와 들의 빛칠을 쓸 일이 업스니 이는
^二하느님의 영광이 빛칠이 고어린 양이 곳 그 등이 됨이라 만국이 그 빛

^{十五}가온 디로 든니 고 싸에 왕들이 조기의 영광을 가지고 성으로 드러오는지라
^{十四}성문을 도모지 닫지 아니하니 호상 낮이오 거기는 밤이 업도다 사람이
^{十三}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드러 오겔고 무어시던지 색긋지
^{十二}아니흔 거시나 가종흔 일과 거죽 말하느자는 결단코 그리로 드러
^{十一}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성명칭에 귀록흔 자뿐이라
^十더가 내게 성명슈의 강으로써 보이니 슈정 및 치 묶은디 하느님과 밋어린
^九양의 보좌로 브러 나셔 거리 가온 디로 호르더라 강 좌우에 성명 나무가
^八잇서 실과 열두 종류들 밋치되 들마다 그 실과가 밋치고 그 나무 잎사귀는
^七만국으로 소성하게 호는지라 다시는 저주함이 업스며 하느님과 그 어린
^六양의 보좌가 그 가온 디 잇스리니 그 종들이 주를 섬기며 그 열골을
^五불러인디 주의 일홈도 더희 나마에 잇스리라 다시 밤이 업겔고 등 불과
^四히 빛출 쓸 일이 업스니 이는 주 하느님이 더희게 빛칠심이라 더희가
^三세세에 왕노릇 호리로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二참된지라 주 곳 선지자의 령호의 하느님이 그런스를 보내샤 그 종들의게

七 당녕속히 될 일을 보이셨도다 불지어 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척에 예언
 八 나 말씀을 직히는 자가 복이 잇스리라 하더라 ○ 이 여러 거슬 보고 드른자는
 九 업드려 경박하니 내가 보고 드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압해
 十 형데 여러 선지자와 또 이 척의 말을 직히는 자들과 못된 종이니 오직
 十一 인봉호지 말나 때가 갓가 오니라 불의호자는 그대로 불의호고 더러운자는
 十二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자는 그대로 거룩할지라
 十三 불지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상벌이 잇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十四 갓하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오시작과 뜻치라 그 옷을
 十五 써 손자는 복이 잇스리니 너희가 성명 나무에 나아갈 열세가 잇고 또
 十六 문으로 성에 드러가갓고 성밖에는 개와 복술과 형음호자와 살인호자와
 十七 우상의 제 절호는자와 밋거죽 말을 도하야 지어 내는 모든자가 잇스리라 ○
 十八 나 예수는 여러 교회를 위하야 내 스자를 보내어 이 여러 일노 내게

一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씨리 오 조손이니 곧 광명호 재벽 별이라
 二 하시더라 ○ 성신과 신부의 말씀이 오라 하시는도다 뜻는자도 오라 할
 三 거시오 목 목은자도 올 거시오 또 원호는자는 밤 업시 성명슈를 마시라 ○
 四 내가 이 척에 예언할 말씀을 뜻는자의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던지 이 말
 五 외에 더하면 하는님이 이 척에 기록호 여러 지항으로 그의게 더 할 실러이오
 六 만일 누구던지 이 척에 예언할 말씀에서 열마를 제호 하면 하는님이 이 척에
 七 기록호 성명 나무와 밋거룩호 성에 참여호를 제하시리라 ○ 이 여러 거슬
 八 증거하신이가 곧 사탄 내가 진실노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九 예수여 오시옵소서 ○ 주 예수 의 은혜가 성도의게 잇슬지이다 아멘